

리이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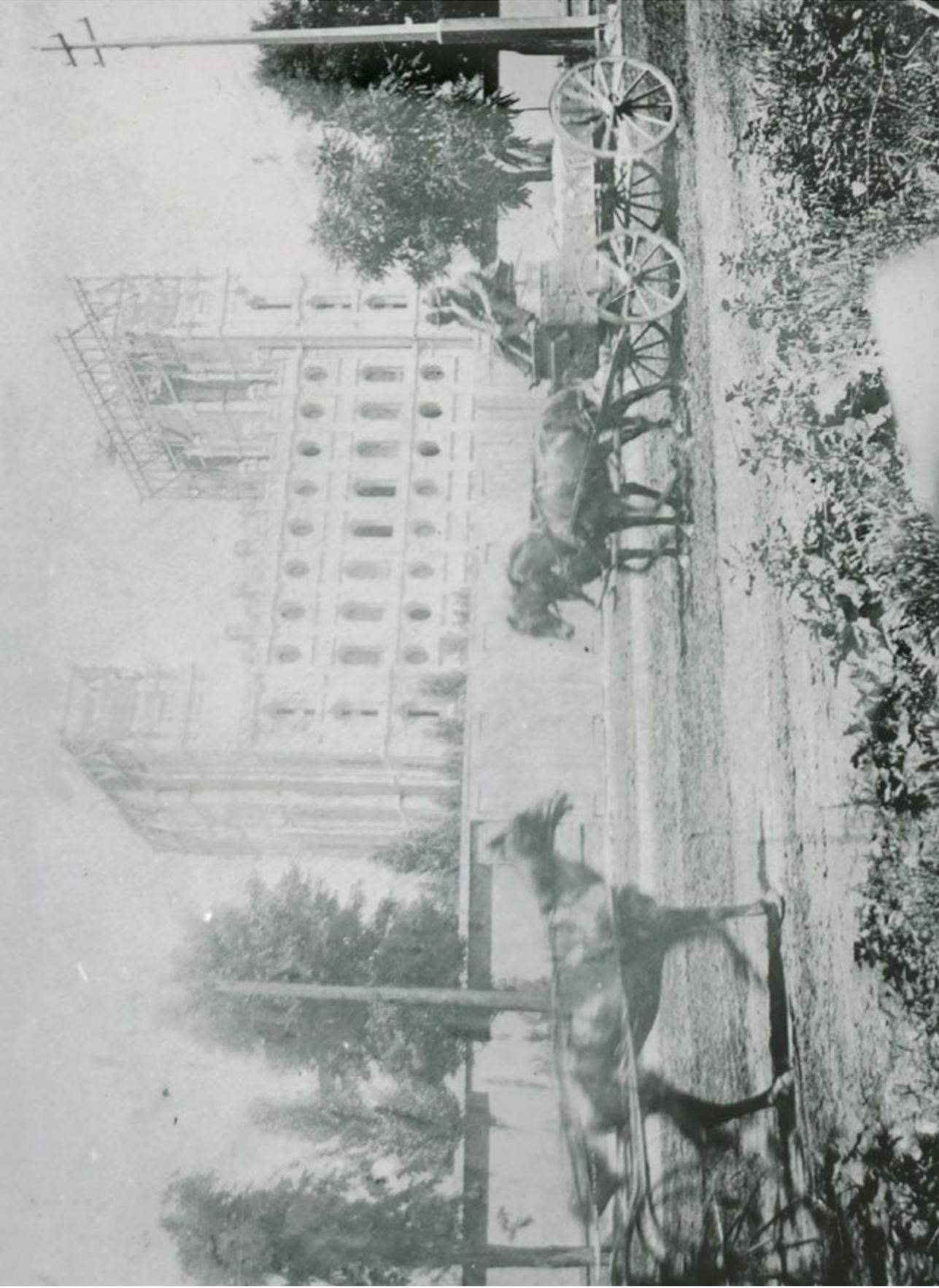
자립으로 향하는 길
찾기, 32, 40~43쪽

성전 및 가족 역사: 넬슨 회장 부부의
권유, 14쪽

최근에 침례받았는가? 여러분도 지금
바로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다,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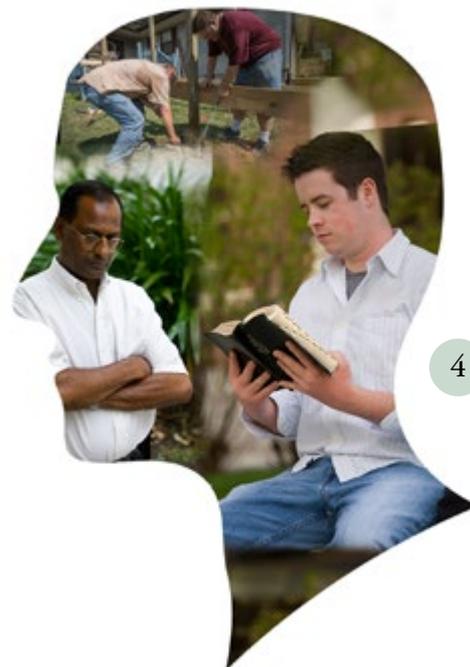
결혼 관계에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22쪽





1891년쯤에 찍힌 사진으로 말과 시뮬차들이 솔트레이크 성전 옆을 지나고 있다. 1893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 되었을 당시는 윌포드 우드럼(1807~1898)이 교회 회장이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럼 [2004], 94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참된 제자가 되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길 잃은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표지 사진: 레슬리 닐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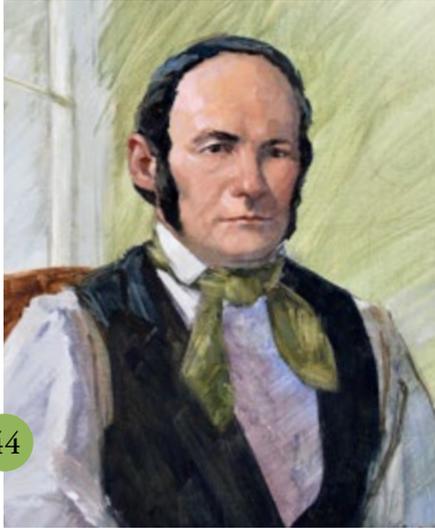
특집 기사

- 14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하늘을 열다
러셀 엠 닐슨 회장과
웬디 더블유 닐슨 자매
승영은 가족의 문제이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의식을 통해서만 승영에 이를 수 있다.
- 20 성전에 가서 침례받기 전에 알아 둘 것들
헤더 존슨
새로운 회원인 여러분도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통해 지금 바로 성전에 갈 수 있다. 성전에 가기 전에 생각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펴보자.
- 22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에스 브렌트 사먼
갈등이 해결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 28 낸시의 죽음 이후 도움을 찾으며 대린 월콕스
내가 느끼는 이 거대한 슬픔을 어떻게 평안으로 바꿀 수 있을까?

- 32 “자립하고 독립합시다”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교회 본부 기사

- 8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는 또 있다
엠버 젠슨
- 10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공과반의 코끼리
제시카 그리핀 및 리차드 엠 롬니
- 38 신앙의 초상: 일리 도다이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44

44 청년 성인들이 청년 사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교훈

매튜 시 고드프리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회복되고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사도들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때로는 재미있게 노는 것이 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50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예수께서는 가장 힘겹게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덜한 고통을 겪는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 깊이 연민하신다.

54 연차 대회 메시지로 삶을 바꾸는 방법
해들리 그릭스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가? 다음 퀴즈를 통해 알아보자.

58 굳건히 지키다
린지 힐러
내 친구들은 내게 술을 마시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한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60 "십 대의 전형"을 깨고
샬럿 라카발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움직일 때이다.

62 포스터: 신앙으로 떠오르십시오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스스로 아는 법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4 질의응답
기도와 경전 공부 외에 간증을 강화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66

66 파리에서 삿포로까지
에이미 제인 레빗
프랑스와 일본의 어린이들은 모두 고대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새로운 성전이지요!

68 사도들의 답변: 성신이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69 우리들 이야기

70 제인의 여정
제시카 라슨
보트도 없이 제인의 가족은 어떻게 나무로 가야 할까요?

72 세라와 엠아르아이 (MRI: 자기 공명 영상)
줄리안 도먼
세라는 엠아르아이를 찍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4 교회사의 인물들: 새로운 선지자

75 한 번에 하나씩 돕는 손길
칼렙 에이치
칼렙은 난민들을 돕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어요
김 웹 리드

79 색칠하기: 안식일은 거룩한 날

58



2017년 10월호 제54권, 제10호

리아호나 1445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문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호: 러셀 엠 넬슨, 멀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쿨,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버드, 게리 이 스트리븐스, 데일 지 랜런드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클리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드,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레리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미다 애머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플러, 개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켄슨, 샬라 라카벨,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톨나, 민디 앤 셸루,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제시카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글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디자인 인턴: 앨리리 치예코 레밍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어데어,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가일 타데 러퍼티, 데레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구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9호, 제54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훈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 (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어, 마살어, 할라카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루어, 스와힐리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도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탈루냐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 2017 VOL. 41 NO. 10.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 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
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고 나누십시오.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역사, 14
- 간증, 63, 64
- 결혼, 22
- 경전 공부, 64
- 교사 평의회 모임, 10
- 교회 역사, 10, 44, 70, 74, 76
- 기도, 63, 64
- 난민, 75
- 포래의 압력, 8
- 봉사, 38, 75, 80

- 비통, 28
- 사랑, 7
- 사망, 28, 38
- 새로운 회원, 20
- 성신, 68, 72
- 성전 사업, 14, 20, 66,
- 성전, 66, 69
- 신성한 본질, 60
- 신앙, 28, 32, 62
- 안식일, 79

- 연차 대회, 54
- 예수 그리스도, 28, 50, 76
- 위안, 28, 72
- 자립, 32, 40, 41, 42, 43
- 제자 됨, 4
- 지혜의 말씀, 58
- 취업, 32, 41, 43
- 평안, 28
- 하나님 아버지, 4, 7, 8, 14, 38, 63, 76
- 회개, 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는 매주 성찬식에서,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의 영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특권을 누립니다.(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그분의 이름을 받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상 그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읽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하려 하시는 일을 알고자 기도할 때, 우리는 특히 더 그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저는 한 젊은이의 침례를 집행하면서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분과 그분의 참된 교회를 증거할 목적으로, 구주께서 성임하신 종들에 의해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였던 저와 제 동반자는 그 젊은이에게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권세를 지닌 종에게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깨끗해지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를 침례의 물에서 들어 올리자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 순간,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이 집행했던 구주의 침례가 떠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활하시어 살아 계신 구주의 구원 사업을 제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이 그러했듯 성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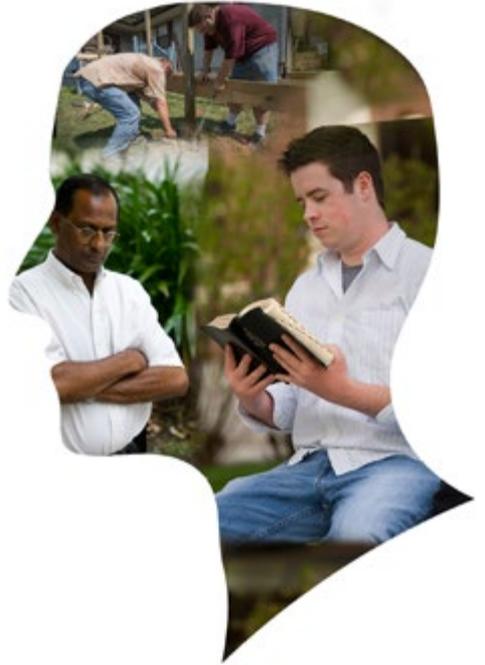
입한 가운데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구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이 담긴 기억에 의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들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경전을 읽겠다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몰몬경을 읽을 때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낍니다. 니파이후서를 펼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니파이와 리하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마치 구주를 개인적으로 아는 듯한 어조로 구주를 묘사합니다. 그럴 때면 구주께서 곁에 계신 듯합니다.

여러분도 특히 구주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경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진정한 의도와 함께 겸손한 마음을 지닌다면, 일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소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보이는 부름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나를 잊고, 내가 부름받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더 집중할 능력을 주십사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제 자녀들에 대한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복음만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찾게끔 도울 방법을 알고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그분의 손길을 느꼈으며, 그분이 곁에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제가 성공적인 부모로 비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려놓고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구주께서 주시려는 것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구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하시기 위해 성신을 보내십니다.

영은 항상 구주를 증거하므로(제3니파이 11:32, 36; 28:11; 이터서 12:41 참조), 성신을 받을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힘이 커집니다.(마가복음 12:30; 누가복음 10:27; 교리와 성약 59:5 참조)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구할 때, 매일 생생히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축복을 더디지만 꾸준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왕국에서, 그리고 장차 도래할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어링 회장은 매일 구주와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항상 구주를 기억하라고 권고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나타내는 성찬 기도문을 읽어 준다.(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또한, 매일 구주를 기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아서 적어 보게 한다. 서로의 성공과 복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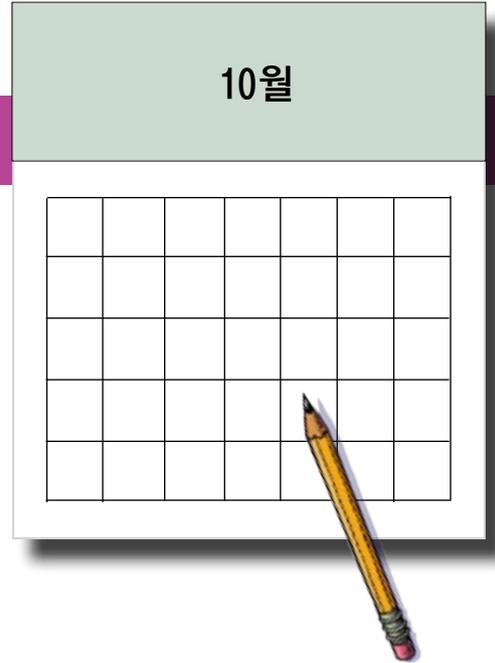


매일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친 구, 집안일, 숙제, 텔레비전 등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들은 정말 많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교리와 성약 20:79)하겠다고 약속한다.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구주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매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달에는 하루하루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보자. 달력을 만들어서 하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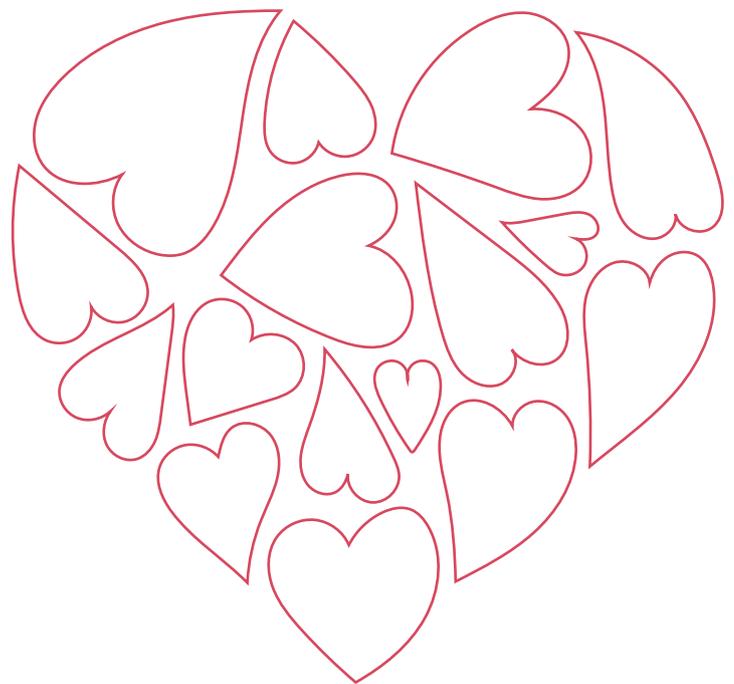
한 가지씩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어링 회장은 그런 일들로 경전 읽기, 신앙으로 기도하기, 구주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 등을 언급했다. 그 외에도 일지 쓰기,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연차 대회 말씀 듣기, 성전에 가기, 찬송가 부르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매일 구주를 기억한다면, “축복을 더디지만 꾸준히 받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어린이

풍성한 사랑

경 전을 읽거나 기도할 때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마다 하트에 색칠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길 잃은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하나님의 딸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면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준비될 수 있는가?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가족이란 없습니다. ... 여러분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든, 해결의 시작과 끝은 사랑, 곧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복음 안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 그들이 복음의 길 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어디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²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다루기 힘들더라도 ... 그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말할 때는 분노로도 하지 말고 가혹하게 하지 말며 책망하는 태도로도 말고 친절하게 이야기하십시오.”³

칠십인 정원회의 브렌트



신앙
가족
구제

에이치 닐슨 장로는 은전 10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신 구주의 가르침을 되풀이하였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그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라면,] ...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

탕자를 사랑하고 바라보며 기다릴 때,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⁴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속죄의 권능을 찾고 느끼게 되길 바라며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신앙으로 기도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각 자녀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⁵

추가 성구 및 자료

마태복음 18:12; 엘마서 31:35; 제3니파이 13:32; 교리와 성약 121:41~42
reliefsociety.lds.org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결혼과 가족을 수호하는 이들을 칭송하며”,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79쪽.
2. Linda K. Burton, in Sarah Jane Weaver, “Sister Burton, Sister Wixom Visit Church’s Pacific Area,” *Church News*, Apr. 2, 2013, lds.org/church/news.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254쪽, 번역 수정.
4. 브렌트 에이치 닐슨, “탕자를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3쪽.
5. 헨리 비 아이어링, “내 손주들에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71쪽.



생각해 볼 점

어떻게 하면 복음 원리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는 또 있다

엠버 젠슨

내 학생 중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단다. 넌 성공할 수 있어.” 주님도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샌드라는 내가 가르치는 영어 수업의 고급반 학생이었다. 그해에 샌드라는 몇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숙제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공상에만 잠겨 있었다. 왜 과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샌드라는 이런 까다로운 수업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태도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샌드라의 상담사와 나는 샌드라 부녀와 다른 선생님 몇 분과 만나서 샌드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회의를 열기로 계획했다. 거기서 샌드라가 고급 과정을 중단하고 대신 일반 과정을 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려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질문이었다. 과연 우리는 샌드라가 성공하도록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샌드라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다 제쳐두고 스스로 실패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믿으며 매우 낙심한 기분으로 회의에 들어갔다. 사실, 나는 내가 샌드라에 관해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샌드라가 내 수업을 그만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며, 이미 때는 너무 늦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샌드라는 자신에게 성공할 능력이 있는지 자신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내가 샌드라가 수업에서 뒤쳐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 애는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역사 선생님 또한 샌드라가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하자, 아이는 의자에 앉아 축 늘어진 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최대한 연민을 발휘하여, 이렇게 힘든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면 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원인, 즉 샌드라의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며, 그 일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샌드라와 샌드라의 아버지께 설명했다.

샌드라의 아버지가 전한 메시지

상담사는 자세를 바꾸어 샌드라의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학교라는 장소 자체를 불편해하는 듯했다. 상담사는 아버지가 혹시 교사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그는 질문은 없으며, 우리가 샌드라를 잘 돌봐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팍 막혀 왔다. 전에도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교사와 상담사 앞에 자녀를 앉혀 놓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의욕이 부족하다며 큰 소리로 자기 아이를 나무라는 부모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말이 나오겠거니 하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놀랍게도 나는 전혀 다른 말을 들었다. 이 겸손한 아버지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주눅이 들어 눈물을 글썽이는 열여섯 살짜리 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단다. 넌 아직도 성공할 수 있어. 정말이야, 너무 늦은 때란 없는 거야.”

샌드라의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 어린 반응을 보여 주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회의를 마쳤으나 그분 역시 당장 딸이 합격점을 받게 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건 불가능할 듯 보였다. 그 후, 샌드라가 내 영어 수업이 아니라 역사 수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저녁에 나는 내 부족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나는 내가 샌드라의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 때로 삶에서 불안감과 부족함을 느낄 때면



내가 과연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꾸지람을 주시는 대신 샌드라의 아버지처럼 나를 안심시키셨다. “아직 그리 늦지 않았다, 내 딸아. 아직 시간이 있어.”

복음이 주는 메시지

사탄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말을 믿었던가?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은 그와 다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7) 이에 물론도 자신의 간증을 덧붙인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모로나이사서 6:8) 복음의 기쁨은 절대 늦은 때란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만큼 자주 주님의 구속을 통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샌드라는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받았고, 느리게나마 중요한 변화를 이뤄 나갔다. 나쁜 습관을 극복하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해야 하는지라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샌드라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최종 성적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비틀거렸으며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회개했으며, 또

얼마나 주님의 속죄에 의존했는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내 한정된 이해력으로 샌드라가 과연 과거의 실수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구원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길에서 벗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분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죄 안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소망 안에서 그분을 찾아 그분의 무한한 속죄에서 비롯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진정, 너무 늦은 때란 없다. ■
글쓴이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산다.

공과반의 코끼리

교사 평의회는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방식 또한 바꾼다.

제시카 그리핀 및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미스와크 시톨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워드 주일학교 회장으로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은 워드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향상되도록 돕는 일이다.¹

그러나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그의 워드 회원들의 배경과 기대치는 종종 서로 완전히 다르다. 어떤 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이 학생은 앞서서 듣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워 왔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교회와 집에서 가르치는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톨 형제는 말한다. “또한 우리 중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죠.”

작년에 교사 평의회 모임과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이 소개된 이후로, 세계 전역에 있는 와드와 지부에서는 교사 평의회를 통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있다.

시톨 형제는 그때부터 교사 평의회가 그의 와드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주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논의되고,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회원들의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은 축복이 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여러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시톨 형제는, 주님께서 교사 평의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식 또한 바꾸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독특한 시각으로 완성된 코끼리

시톨 형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교사가 회원들에게

배움에 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시작한 이후로 회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오는 확장된 시각을 통해 모두 함께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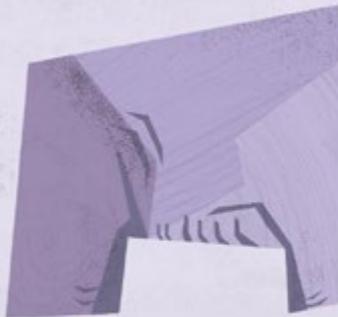
시톨 형제가 이를 이해하게 된 것은,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어떤 회원이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였다. 그 비유는 여섯 명의 장남들이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져 보고는 자기들 나름의 시각으로 코끼리의 생김새를 각기 다르게 묘사했다는 이야기이다.(다리를 만져 본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고, 꼬리를 만져 본 사람은 밧줄같다고 하며, 코를 만져 본 사람은 호스같다고 하는 등)²

“그 코끼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비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시각을 나누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할 수

밧줄



벽



부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톨 형제의 와드에서는 교사 평의회를 할 때도 언제나 교사들이 탁자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 앉아 모임을 한다. 토론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앉으면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시톨 형제의 말이다.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일본 도쿄에 사는 나츠코 소에지마 자매는 자신이 교사의 임무를 잘 해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소에지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주일학교 청소년 반 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부름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크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하지만 감독님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부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반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그녀에게 걱정을 안겨 주었다. 반원 중

두 명은 청각 장애가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으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반원들은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녀와 반원들 사이의 나이 차도 염려가 되었다.

그러다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소에지마 자매는 해답을 찾았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반원들 각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반원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영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알고 그에 맞추어 공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 보기 시작했어요.” 소에지마 자매는 또한 교사 평의회에서 배운 다른 것도 시도해 보았다. “반원들에게 말을 할 때 제 사랑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슴속에 반원들에 대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죠. 공과 시간에 오지 않은 반원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주의 공과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주 공과 준비를 시작해요. 그러면 가르칠 기회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어요.”

구체적인 응답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브래드 윌슨 형제는, 교사 평의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모임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을 통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토론해야 한다고 말한다.

윌슨 형제는 말한다. “우리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나오는 개요를 따릅니다. 즉, 먼저 교사들이 했던 경험들을 토론하고, 그런 뒤 제안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토론을 합니다. 저는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질문을 하고 발표된 의견을 요약합니다. 그런

기둥



호스



창



다음 그런 내용을 공과에 적용해 보는 실습 시간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오늘 모임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나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같은 와드의 집사 정원희 담당 교사인 론 굿슨 형제는 윌슨 형제가 교사 평의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구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을 통해 ‘바로 이것이 내가 우리 반에서 해 봐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하면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공과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썼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은 교사 평의회에 참석했다. 내가 공과반에서 해 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사실, 그의 일지에는 그런 내용이 가득하다. 이제 그는 공과 준비를 일찍 시작한다. “공과 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한 주 내내 성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집사들이 각자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자 그들에게 자주 묻는다. “제가 집사들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집사들이 직접 공과의 일부를 가르쳐 보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직접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때, 반원들은 더 잘 배우게 됩니다.”³

계속 노래했어요

같은 미네소타 와드의 초등학교 교사인 조슬린 헤링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우리는 음악이 어떻게 영을 초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얼마 후 제가 햇님반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색칠을 하는 동안 내가 노래를 불러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는 제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노래했어요. 그 노래는 영을 불러왔고, 노래를 마쳤을 때 아이들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간증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교사 평의회를 통해 배웠었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정보

교사 평의회 및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대해 더 배워 보려면 Teaching.lds.org/kor을 참고한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 간증을 나누었어요.”

헤링턴 자매는 초등회 교사들도 교사 평의회에 포함된 것이 감사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럴 때면 윌슨 형제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청소년을 가르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회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라면요?’ 그렇게 윌슨 형제님은 모든 나이가 적용되게 함으로써 초등회 교사들도 토론에 결부시키세요.”

워드 평의회와 교사 평의회

캐나다 앨버타 켈거리에서 워드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는 애덤 마틴 형제는 워드 평의회에서 나오는 제안들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마틴 형제는 말한다. “워드 평의회에서 상호부조회 회장 또는 장로정원회 회장이 ‘우리는 교사들이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항을 교사 평의회로 가져와 안건으로 삼습니다.”

교사 평의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교사들이 그 모임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마틴 형제는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 권유하고 teaching.lds.org에서 찾을 수 있는 훈련 자료들을 소개했다. “이제는 교사 평의회가 자기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한다. “이제 교사들은 교사 평의회가 그들이 반에서 겪는 경험들을 토론하는 곳을 압니다.”

최근에 열린 모임에서는 영을 따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리는 공과를 잘 준비하되 준비한 것을 모두 다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자매님이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공과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다고

2018년 일요일 모임에 대한 변경 사항

1월부터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이다. 이 변경 사항은 회원들이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공과 교재를 포함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 달부터 연차 대회 특집호, 복음자료실 앱, LDS.org 등에 게재될 것이다.

말씀하시더군요. 교사 평의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자매님은 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걱정을 덜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각 공과반에는 그 공과반만의 기회들, 어려움들, 그리고 잠재된 축복들이 있다. 교사 평의회가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 평의회는 교사들이 영의 인도를 받아 그들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문제와 과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 찾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는 제프리 리드 형제는 교사 평의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그들의 참석 목적으로 이해할 때 교사 평의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교사들이 “내가 공과를 잘 했는가?”가 아니라 “반원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는가?” 자문하도록 돕는 데 스테이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같은 스테이크의 초등회 교사인

머리사 코노바 자매는 교사 평의회에서 받은 영감에 따라, 자신이 가르치는 용기반의 여덟 명의 반원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효과적이었지만, 성인반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코노바 자매는 말한다. “반원 수가 많은 복음 교리반에서는 모든 반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사들은 ‘그걸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 우리는 같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가 교사 평의회에 대해 특히 감사하는 점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의견과 격려를 얻는 일은 정말 유익해요. 우리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또한 많은 사람이 평의회에 와서 각자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저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없었을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해 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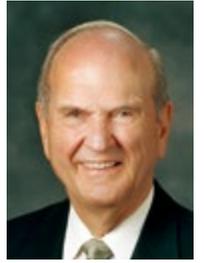
교사 평의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때, “복음 교육”이란 이름의 코끼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프리카의 시톨 형제처럼,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의 수많은 회원들은 이것을 알고 느끼고 있다. 즉, 우리가 점차 구구해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방법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이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2.2.2 참조.
2. 이 비유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 “진리는 무엇인가?”에 나온 것이다. (교회 교육 기구 청년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broadcasts.lds.org.
3. 더 많은 제안을 보려면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청소년이 가르치도록 돕는다”, 리야호나, 2016년 8월호, 24~25쪽을 참조한다.



돌아가신 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아들이자 제 할아버지인
에이 시 벨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살아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해 줄 것을
고대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웬디 더블유 넬슨
자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하늘을 열다

2017 루츠텍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과 부인
웬디 자매는 후기 성도들에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했다.

넬슨 회장: 제 할아버지이신 에이 시 넬슨은 결혼하여 아버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7세의 젊은 나이에 당신의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석 달쯤 지난 후, 그분의 돌아가신 아버지이자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그분을 찾아오셨습니다. 1891년 4월 6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에 감명을 받은 넬슨 할아버지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와 침대 곁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시간이 좀 생겨서 잠시 널 보러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단다. 난 잘 지낸다. 죽은 뒤로 정말로 할 일이 많았단다.’”

무슨 일로 바쁘셨는지를 여쭙자, 증조할아버지는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느라 바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넌 상상도 못 할 게다. 영의 세계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영들이 정말로 많단다. 하지만 지금 많은 영이 복음을 배우고 있고,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이란다. 아직 살아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해 줄 것을 고대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성전에 가서 아버지에게 인봉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증조할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널 보러 온 이유 중 하나란다. 우리는 이제 가족을 꾸려 영원히 함께 살 거란다.”



에이 시 벨슨, 러셀 엠 벨슨 회장의 조부

그러자 벨슨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참된가요?”

증조할아버지는 침실 벽에 걸려 있던 제일회장단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듯, 복음이 참되다는 것도 확실하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것에 순종할 모든 남성과 여성을 구원하는 권능이 내재되어 있단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아들이야, 항상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주 기도하며, 신권에 순종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거라. 하나님을 거스를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복음은 정말로 축복이란다. 아들이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벨슨 자매: 저는 앞서 언급된 덕목이 모두 정말 마음에 듭니다. “겸손하고, 자주 기도하며, 신권에 순종하고, 진실되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께서 이 여섯 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시다니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도 이와 아주 흡사한 여섯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¹

벨슨 회장: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 기록을 남겨 주셨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그 뒤로 증조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께 인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방문하셨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아의 영

벨슨 회장: 경전에는 가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엘리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아[EL-I-JAH]란, 글자 그대로 “여호와와는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²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아라는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말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벨슨 자매: 엘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마지막으로 멜기세덱 신권의 인봉 권능을 지녔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아의 사명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서 그들이 인봉되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39; 강조체 추가) 정말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벨슨 회장: 저는 엘리아의 영은 “성신의 임재하심을 동반하여 가족의 거룩한 본질을 증거”해 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³ 경전 안내서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엘리아의 권[능은] 땅에서 매이거나 또는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리게 하는 신권의 인봉 권[능]이다.”(“엘리아”)



넬슨 자매: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이 사람들에게 사망한 친적을 찾도록 격려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성신이 우리에게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속삭여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넬슨 회장: 가족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고 기억할 만한 방식으로 들려줌으로써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가족 역사와 관련된 문서, 이야기, 사진, 수집품 등을 항상 눈앞에 둔다면 우리는 간증이 강화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5 참조) 우리는 그것들을 벽에 걸거나 탁자에 놓아둘 수 있으며, 컴퓨터나 아이패드, 휴대 전화에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감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주님과 또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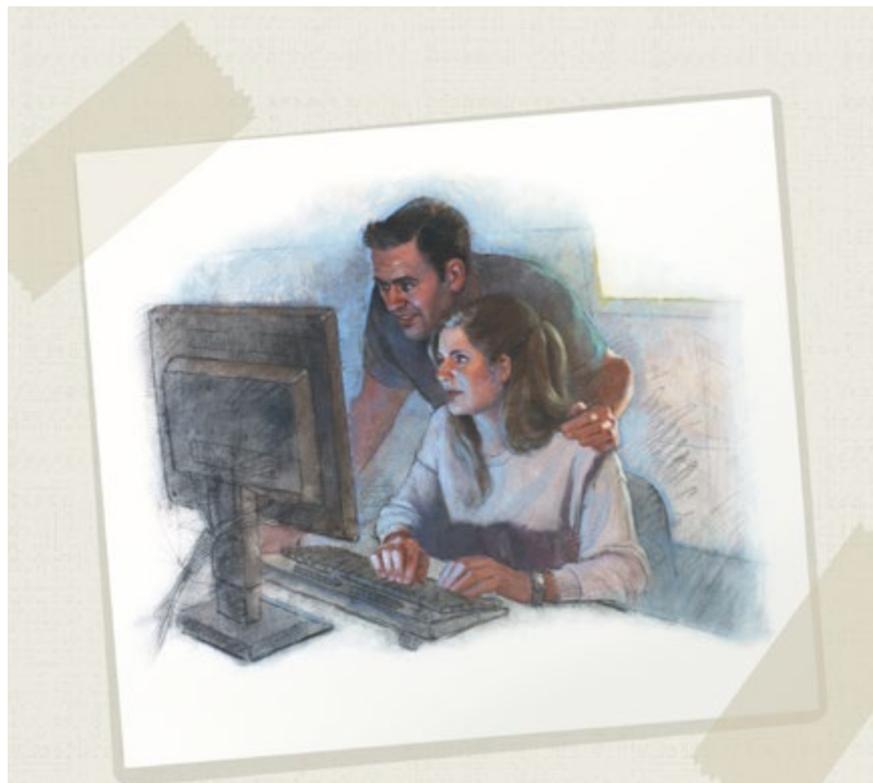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조상들은 우리 없이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도 그들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 덕분에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5 참조) 즉, 우리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통해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단단한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집한 이야기와 사진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되고 만다면, 우리가 조상들과 그들의 놀라운 점에 대해 알고서도 의식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영육에 갇힌 우리 조상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넬슨 자매: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위한 의식에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고자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넬슨 회장: 그렇게 하려면 보통 다른 활동을 하는데 쓰는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색인 작업을 비롯한 가족 역사 조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넬슨 자매: 희생은 진정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줍니다.⁴ 저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의식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드는 조상들을 많이 찾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로 일하면서 시간과 힘,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시간을 더욱 쪼개어 조상들을 위한 의식에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그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고자 성전에 간다면 하늘이 열리고 힘과 아이디어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끝내야 할 날짜를 맞추기가 여유로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진정 제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족 역사 및 선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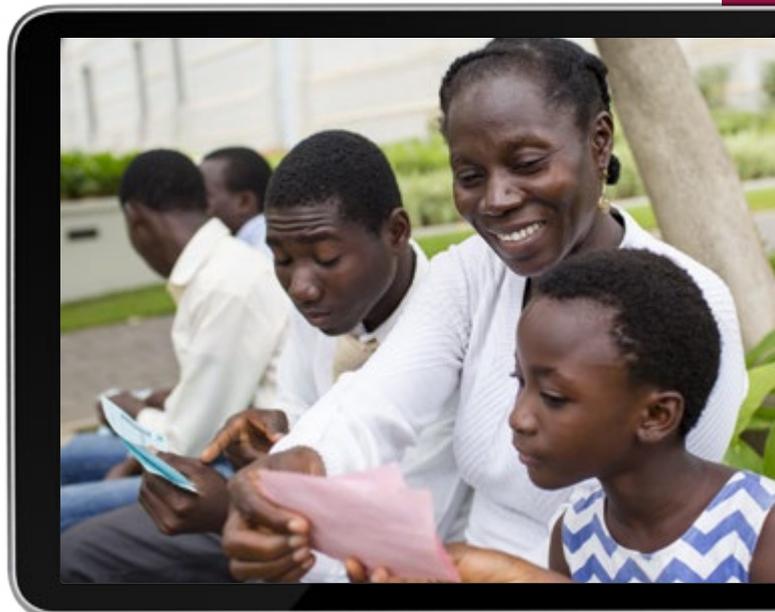
넬슨 회장: 만일 제가 지금 선교사였다면, 제가 봉사하는 와드나 지부에서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낼 친구는 바로 선교 책임자와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신의 조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선교사들에게 자연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선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족에 관해 묻게 됩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조부모님은요?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님들을 알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에게 이끌리어 이야기를 하게 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대화는 수월하게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회원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조할머니나 증조할아버지 중에 아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성함을 아시나요?” 구도자는 여덟 분이나 되는 증조부모의 이름을 다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형제님/자매님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증조할머니 또는 증조할아버지 중 몇 분 또는 모든 분의 성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분들의 성함을 찾기 위해 두어 시간쯤 들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도울 수 있는 교회 친구란 물론 와드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입니다.

넬슨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고 가르칠 때 도움받을 곳이 있음을 안다면, 선교사들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분의 교회 회장을 보좌했던 조지 큐 캐넌(1827~1901) 회장은 이 후일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대리 의식을 통해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자 후손 중 한 명을 선택해 그를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⁵

승영, 가족이 함께 이루어 가는 일

넬슨 회장: 승영은 가족이 함께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의식을 통해서만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즉,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넬슨 자매: 교회에서 공과를 듣고, 봉사하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신권 의식을 받는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부와 자녀가 성약을 지킬 때, 그들은 인봉 의식을 통해 크나큰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 우리는 생각과 느낌,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곳을 매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모세서 1:39 참조)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당신께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어떤 식으로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께로 돌아가고자 원하는지를 그분께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영생을 누릴 영광스러운 가능성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맺은 성약을 지키고 매일 회개하며 더욱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넬슨 자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혹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비참하든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한다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바라십니까? 더 많이 자제하며, 더 큰 평화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의미 있는 순간을 더 바라십니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고 싶으십니까? 영혼의 질문에 더 많은 답을 얻고 다른 사람과 더욱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경전에서 읽은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커지기를 바라십니까? 더 큰 권능으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직장 및 여러 프로젝트에서 영감과 창의력을 더 발휘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친 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조상들을 돕고 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넬슨 회장: 우리는 다른 이들이 경험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이야기를 통해 온종일이라도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쁨을 경험하려면, 구체적인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 사업에 관한 훌륭한 느낌이 지속하고, 또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도전해 보았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더 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간을 희생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

2017년 2월 11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7 루츠텍(RootsTech) 가족 역사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발췌함. 녹화된 발표 자료는 lds.org/go/2017Nelson에서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시청할 수 있음.

주

1. 고든 비 헵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참조.
2. 경전 안내서, “엘리아”.
3. 러셀 엠 넬슨,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34쪽.
4.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5. *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President George Q. Cannon*, comp. Jerreld L. Newquist, 2 vols. (1974), 2:88-89 참조.



성전에 가서 침례받기

전에 알아 둘 것들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청소년과 신회원을 포함하여
합당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

헤더 존슨
교회 잡지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은 말했다. “진실로 성전에 참여하고, 또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 서둘러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별된 공간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성전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6쪽, 번역 수정)

이 권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최근에 침례받은 회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합당하다면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침례와 확인을 받으면 그 즉시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추천서가 있으면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와 확인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나탈리아 로레나 피게로아는 처음으로 성전에 갔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성전 침례실에서 한 형제님이 우리 할아버지와 삼촌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아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머니와 고모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죠.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그런 경험은 난생처음이었어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제한 사용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2세 이상의 합당한 교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형제의 경우 아론 신권 소유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론 신권은 침례를 받은 후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으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접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침례받기 전에 하는 접견과 비슷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간증이 어떠한지, 계명을 준행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 이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한 사용 추천서를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내 조상을 비롯해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하여 대리 침례와 확인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의 침례 의식과 확인 의식을 떠올리며 그때 맺었던 성약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추천서를 소지하면, 성전에 자주 갈 수 없더라도 성전과 그곳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성약을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용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전 방문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 성전 방문을 계획하려면 와드 선교 책임자나 상호부조회 회장 같은 와드나 지부 역원의 도움을 구합니다.
- 각 성전의 침례탕 운영 일정은 temples.lds.or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성전 방문이 처음이라면 성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이 잡히면, 성전에서는 여러분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하게 될 일에 관해 설명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 성전에 갈 때는 안식일 복장을 합니다.
- 갈아입을 흰색 속옷을 준비해 갑니다. 흰색 속옷을 제공하는 성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전도 있습니다. 흰색 침례복과 수건은 성전에서 제공합니다.

대리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갔을 때, 저는 어떤 순서에 따라 의식을 받게 됩니까?

-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추천서 확인대로 갑니다. 성전 봉사자가 여러분의 추천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 남/여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개인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침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 성전 봉사자의 안내를 따라 대리 침례와 확인을 받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 대리 침례와 확인은 여러분이 받았던 침례 및 확인 의식과 비슷하지만, 죽은 자를 대신해 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식이 끝나면 탈의실로 가서 본인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 성전 의식에 참여할 때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 어디에서나 성전 봉사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에스 브렌트 샤먼

전직 심리 상담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맷 과 마저릿은(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임) 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이 끝나자 텔레비전을 켰다. 영감에 찬 메시지를 들으며 집안 곳곳에 스며든 긍정적인 기운을 한껏 누린 주말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안 되어, 두 사람은 맷이 직장에서 받은 깜짝 보너스로 저축을 할지 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입을 옷을 살지를 두고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실망한 것은 바로 본인들이었다.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맷과 마저릿은 각자 할 일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한 기분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면 부부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남편과 아내는 각자 상대방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끼며 두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랑이 있는
환경에서
갈등을
해결하면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다.



영적인 경고와 인도

경전과 선지자 및 사도의 말씀에는 분쟁에 대한 경고가 많이 담겨 있다. 제3니파이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제3니파이 11:29)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사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 자녀를 부추겨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책략이야말로 가족의 효력과 가정의 존엄성을 훼손시켜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¹

의견, 습관, 배경의 차이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 안식일 예배와 교회의 출판물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지침이 도움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양질의 전문 지식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부부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영감을 받는다면,

두 배우자의 내면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가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인내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벌이고, 싸우고, 눈물을 흘립니다.”²

문제가 지속되고, 그것이 가족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의
원인은 더 심각한 부분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성숙, 이기심,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 자존심 등이
그러한 원인의 예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은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려자의 안락과 안녕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기심이야말로 논쟁,
별거, 이혼, 그리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³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다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나쁜
감정과 불쾌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내가
왜 다투고 있지?’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우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의 바탕에는
고질적인 난제인 자존심이 있습니다.”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지속될
때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갈등의 원인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편견에서부터 몸에 깊이 밴 대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기심과 미성숙 외에도, 부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갈등을
겪는다.

신혼부부가 서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할 때	남녀의 태생적인 차이	피로 때문에 생기는 예민함	양육 방식이나 재정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
자녀가 선택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문제	호불호의 차이	스트레스에 대한 과잉 반응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나 기술 부족



분노에 관해 주의할 사항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난 뒤에는 자칫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못된 일을 곱씹기가 쉽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오래 집중할수록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 내곤 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고, 처음 상황이 해결되기도 전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호르몬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다시금 분노가 폭발하고 만다.

예컨대, 상담차 찾아왔던 메릴린은 남편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운 후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면

좌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한다. 메릴린은 이렇게 말한다. “분명 제가 옳았으니 남편이 불을 켜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이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너무하지 않나요?” 메릴린의 경험은 분노의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습관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도 고치기가 어렵다. 하지만 배우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렇다.



자신의 생각을 신속히 검토한다.

위의 예에서, 메릴린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내가 옳은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 것도 사실이야.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생산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를 내며 감정을 터뜨릴수록 감정은 더욱 격해질 뿐이다.

다시 시작한다.

다툼이 시작되려고 할 때 멈춘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시작하고 처음 3~5분이 대화의 전반적인 기초를 결정짓는다.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요.”라고 이야기해 본다.



기분을 전환할 만한 것을 찾는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산책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부터 가라앉힌다.

호르몬에서 오는 반응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마음을 고양하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



생각을 적어 본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교재인 *Strengthening Marriage* (결혼 생활을 강화함)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따르도록 제안한다. (1) 의견을 표현한다. (2) 문제를 충분히 살펴본다. (3)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선택한다.⁵ 이러한 과정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며 협력하는 가운데 소통 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1. 의견을 표현한다	2. 문제를 충분히 살펴본다	3.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선택한다
<p>솔직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의견을 나눈다.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면, 의견 충돌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저녁 식사 데이트 대신 고등학교 농구 경기에 가자고 하는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심중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남편이 농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나오지 않는 한 선수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p>	<p>남편과 아내가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는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구 경기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아내는 남편이 반원을 염려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가 결혼 생활보다 다른 이들을 항상 더 우선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서로 세심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대립이 협조로 바뀔 만한 분위기에서, 반드시 서로 배려하는 대화를 나누어야만 한다.</p>	<p>남편과 아내는 충분히 고민한 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선택한다.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숙도와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부부는 감정을 표출해도 안전하다는 믿음과 각자 바라는 바를 논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예시에 나온 부부는 금요일 한 번은 부부가 함께, 그다음 한 번은 남편이 혼자 농구 경기에 함께 가고, 나머지 두 번은 둘이서 데이트를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부부가 금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결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 방식이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가이다.</p>



갈등 해결의 결과

사랑이 있는 환경에서 갈등을 해결하면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다. 이러한 축복에는 안도감, 내면의 평화를 불러오는 개인적인 성장, 신앙 강화, 인격 성장, 개인적인 의로움 등이 있다.

갈등이 해결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배우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진 비 빙엄 자매는 말했다. “말이란 것은 사람을 일으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자신을 낙담케 했던 부정적인 말과 자신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랑이 담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고 강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구주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⁶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을 해결한 부부는 가치 있는 보상을 얻는다. 이전에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우리 관계를 돌아해보면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을 통해 제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인내심을 보여 준 아내에게도 고맙습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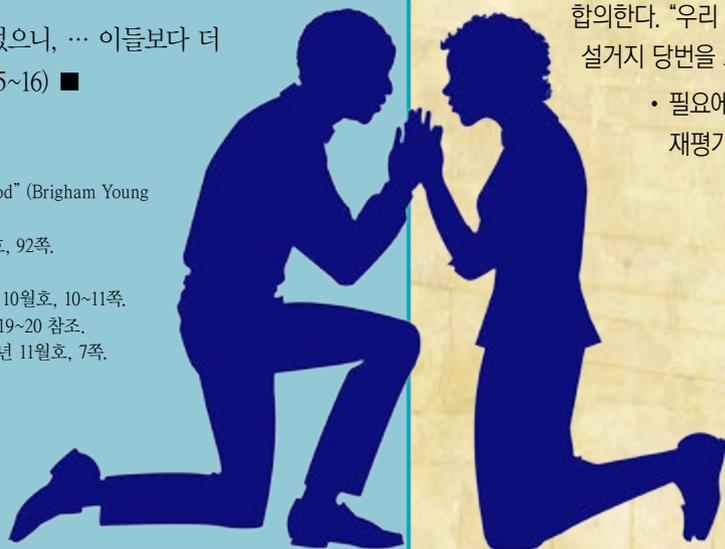
갈등을 해결하려면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하게 될 바로 다음 말과 행동이 결혼 생활에서 더욱 긍정적인 소통을 낳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니파이인들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 ... 없었으니, ...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제4니파이 1:15~16)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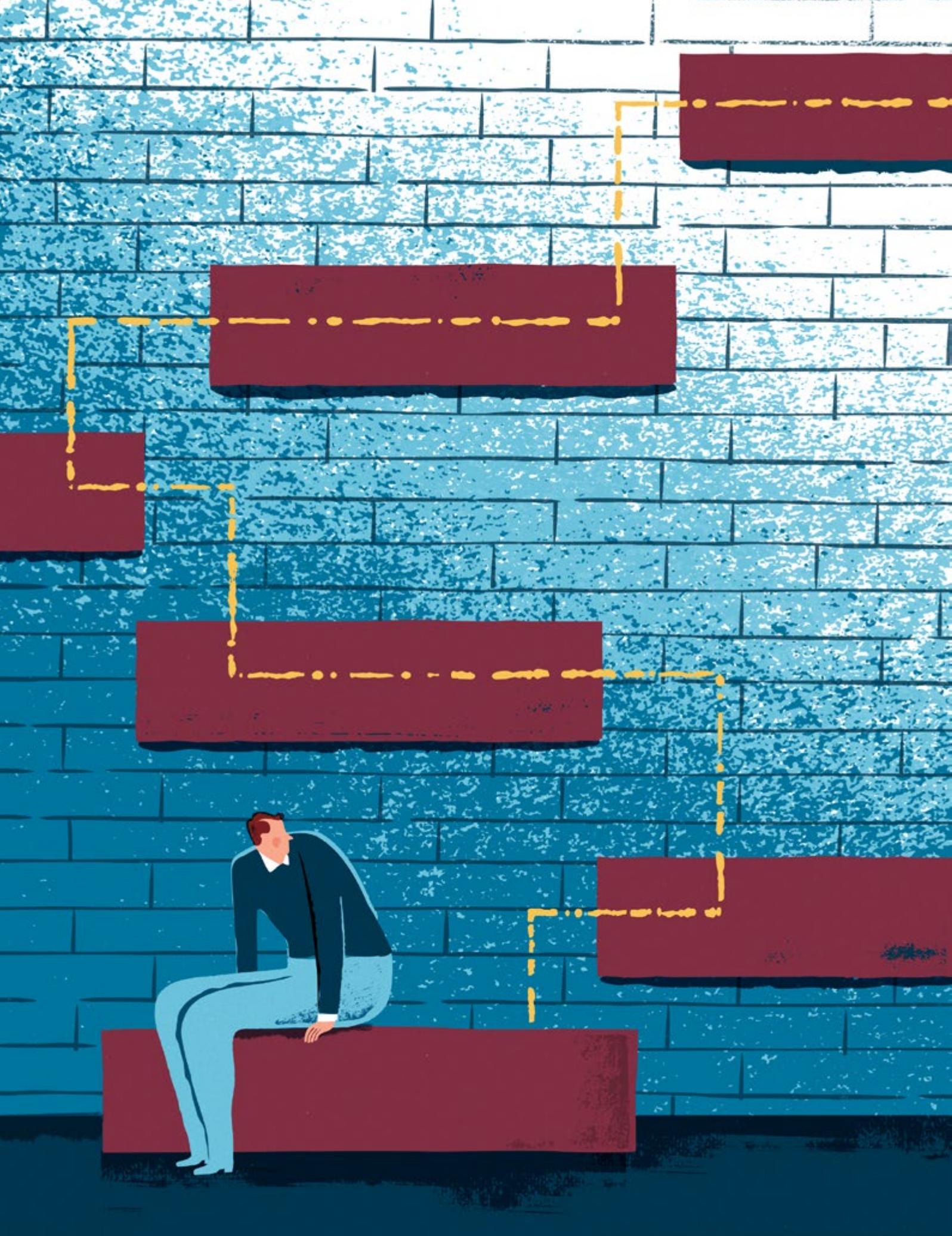
1. M. Russell Ballard, “The Sacred Responsibilities of Parenthoo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ug. 19, 2003), 3, speeches.byu.edu.
2.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복음의 정수”,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92쪽.
3. 고든 비 힝클리, “충실”, 리야호나, 2003년 5월호, 59쪽.
4. 마빈 제이 에쉬튼,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0~11쪽.
5. *Strengthening Marriage: Resource Guide for Couples* (2006), 19~20 참조.
6. 진 비 빙엄,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 리야호나, 2016년 11월호, 7쪽.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다음은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아이디어다.

- 영적인 도움을 구한다.
- 만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논쟁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배우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다.
-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 필요할 경우 잠시 중단한다.
- 적절한 말을 사용한다.
-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맞닥뜨린 문제만 이야기한다.
- 폭력은 절대로 금한다.
- 이혼이나 별거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제가 가족 기도를 맡을 테니 당신은 가정의 밤을 맡으세요.”
-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둔다.
- 중립적인 방법으로 서로 일깨우도록 합의한다. “우리 앞으로 달력에 설거지 당번을 표시하도록 해요.”
- 필요에 따라 해결책을 재평가하고 수정한다.



낸시의 죽음 이후 도움을 찾으며

내 삶에 우리를 치유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작용하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대런 윌콕스

20 16년 2월, 11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아내 낸시가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내가 죽은 후 처음 몇 달 동안 나를 에워쌌던 그 엄청난 슬픔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슬픔, 괴로움, 비참함, 고통, 이 중 그 어떤 말로도 그때 내 기분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구주의 치유 권능

오랫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아래로도 내려가셨던” 까닭은(교리와 성약 88:6)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 도[울](위로하거나 원조하실)”(엘마서 7:12) 능력을 얻으시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구주의 속죄 권능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해 주는 것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구주께서는 이 권능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힘겨워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다. 구주의 권능이 내 삶에도 그런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비탄 속에서 나는 다급하게, 아니 거의 미친 듯이 그것을 알고자 인간힘을 썼다. 나는 몇 주에 걸쳐 경전과 교회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을 탐구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몸소 크나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기에 내가 겪는 이 고통도 아시리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분께서 내 고통을 아시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구주께서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으니, 나를 도울 방법을 아시는 그분께

도움을 받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먼저,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족을 돕고 위로하고 지지해 주셨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특히 낸시의 죽음이 임박해 오던 몇 주 동안은 더욱 그러하셨음을 깨달았다. 또, 내가 경험했던 경이로운 영적 체험은 구주의 속죄에서 오는 치유하는 권능, 그리고 강화하는 권능에서 비롯된 축복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구주께서 이미 매우 개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안을 느꼈다. 고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분은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다니엘 3:17)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또한 주님의 위안과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애초에 하나님은 낸시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셨던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어 본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58:3)



조지아 에블렌터 사진 그림

넨시가 언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음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도 했다. 사랑이 많으시고 만사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까닭은, 우리 가족의 승영을 위해 그분이 마련하신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 웬일인지 이 시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임을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그분의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몫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어내[는]”(교리와 성약 121:8) 것이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 얼마나 헌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나는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 가지로 나는 이 점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며 배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실천해 보도록 권하기도 했다.

- 힘든 경험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더 훌륭한 제자가 된다.
-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 비극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를 신앙과 순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청한다.
-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실하겠다고 약속한다.
- 경전에서, 그리고 현대의 선지자 및 영감 어린 교사들의 말씀과 글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
- 영원한 것들에 관해 배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간다.

- 개인적인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여 그 사람을 강화한다.

사도의 간증

넨시가 죽은 지 한 달쯤 지나, 깊은 슬픔 속에서 더없이 참담해하던 어느 밤이었다. 그날은 온종일 고통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깃세마네를 통해 인도”된다고 하셨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¹ 비록 내 고통이 구주의 고통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그날 밤 나는 내 나름대로 “어둡고 비통한 시간”을 겪고 있었다.²

한참 이런 기분에 빠져 기도로 도움을 구하던 중에, 몇 년 전에 읽고 컴퓨터의 즐겨찾기에 저장해 둔 글이 떠올랐다. 나는 문서를 찾아서 내가 생각하던 부분으로 화면을 내려 보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이 암으로 부인 지진을 잃은 일에 관해 이야기한 1995년의 인터뷰였다.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먼저 … 저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휘장 저 너머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거룩한 의식을 통해 인봉되었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³

그날 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큰

힘을 느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의 불빛이 켜진 것처럼 말이다. 글을 통해 이렇게 순식간에 심오한 영향을 받은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둠과 고통이 사라졌다. 마치 엘마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말했던 때와 같았다.(엘마서 36:19) 사도의 이 간증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어려서부터 알던 개념이 갑자기 그렇게 놀라워 보일 수 있다니 경이로웠다. 스코트 장로님은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게 되셨는지 자못 궁금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충실하다면, 스코트 장로님이 품으셨던 그 모든 희망을 똑같이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분명 그 후로도 슬프고 괴로운 때가 있었지만, 그날 밤 느꼈던 그런 깊은 고통과 슬픔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구주께서는 바로 이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가족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겠지만, 구주의 속죄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강화하고” “온전하게 하는” 축복 안에서 슬픔은 삼키운 바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⁴ 우리는 구주께 더 가까워졌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느꼈으며, 성약이라는 확실한 기초로 지탱되었다. ■

글쓴이는 미국 조지아 주에 산다.

주

1. Jeffrey R. Holland, “Lessons from Liberty Jail”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7, 2008), 6, speeches.byu.edu.
2.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주님의 포근한 품에 안겨”,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쪽.
3. “A Sure Witness of Jesus Christ: Elder Richard G. Scott,” lds.org/prophets-and-apostles.
4. Bruce C. Hafen and Marie K. Hafen, *The Contrite Spirit: How the Temple Helps Us Apply Christ’s Atonement* (2015), 34~52쪽 참조.



낸시 진 뉴턴 월콕스는 11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한 끝에 2016년에 세상을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화되어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사야 53:4)을 지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이사야 41:10) ...

그러므로 속죄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지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 내도록 도우실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주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이나 인내심을 주시어 그 연약함을 견디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건과 경험을 통해 압니다. ...

구주의 속죄는 보편적인 부활을 통한 불멸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와 침례를 통해 죄에서 깨끗해질 기회를 줍니다. 구주의 속죄는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신 그분께 지상 생활의 짐을 짊어질 힘을 달라고 간구할 기회를 줍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고뇌를 아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다쳐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누가복음 10:34 참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있는 치유와 강화하는 권능은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간증하며, 또 구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강화되어”,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2, 64쪽.

“자립하고” 독립합시다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은 교회에서
마련한 자립 프로그램의 원리와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를 때
“위대한 희망, 평화, 진보”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피터 우글로우는 성인이 된 뒤로 교회 회원이 되기 전까지 주로 경제적인 성공을 좇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 피터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웨스트 미들랜즈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마련한 자립 프로그램의 일환인 개인 재정 그룹 과정에 참여해 보라고 했을 때, 피터는 자신이 과연 거기서 배울 게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참석한 지 얼마 안 되어, 피터는 아직도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한다. “그 과정은 단지 재정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정은 일부분일 뿐이죠.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얻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인도를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현세적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립의 길로 안내하신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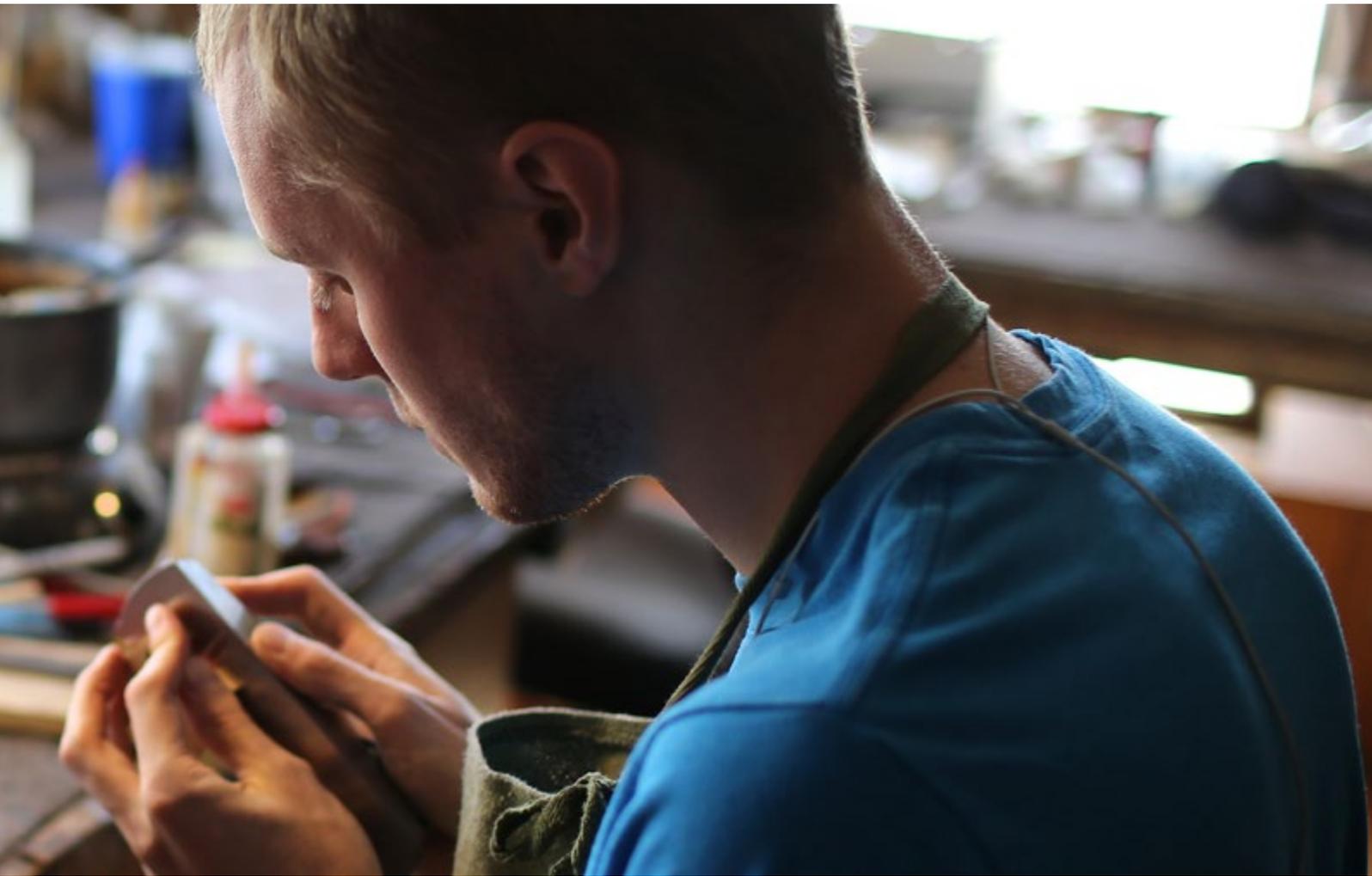
피터는 개인 재정 그룹에 참여하여 가게 지출 내역

기록하기, 예산을 짜서 그대로 생활하기, 부채 줄이기,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하기와 같은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웠다. 그리고 배운 기술을 활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피터 부부는 큰 빚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말한다. “부채와 정리되지 않은 재정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마음이 무척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이런 식으로 느껴 보긴 처음입니다. 저는 현세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응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립 프로그램

자립이란 좋은 직업, 식량 비축, 은행 예금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자립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및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들이다. 회원이 자립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다.” 교회 회원은 일을 삶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립은 우리의 일의 산물이며 다른 모든 복지 업무를 단단히 결속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복지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복지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한 요소입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일합니다. 자립하고 독립합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원리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룩해야 합니다.’”²

2014년 이후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후기 성도가 지역 신권 지도자의 감독하에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회는 현재 북미 전역에 자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자립 프로그램에는 “교회 회원들이 신앙, 교육, 근면,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과정 및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제일회장단은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적인 축복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³

행복과 희망

마리아 에딜렌 호마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혼자서 아이 여럿을 키워야 하는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즈음,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에 있는 마리아의 와드에서 두 명의 회원이 그녀를 자립과 관련된 영적 모임에 초대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마리아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한 그룹에 들어갔다.

마리아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제 내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자립 그룹이 큰 힘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로부터 12주 동안, 마리아는 그룹 활동과 공부에 전념하면서 각오를 다졌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목표를 향해 정진했으며 면접 기술도 익혔다. 그녀는 2주도 되지 않아서 면접 기회를 잡았고 결국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도 함께하십시오

자립으로 향하는 길 영적 모임은 좀 더 나은 자립의 길로 향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 된다. 우리는 영적 모임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진보하기 위한 계획을 설정한 뒤 그 계획을 주님께 보여 드리게 된다. 이 모임이 끝날 무렵에는 자립 그룹을 선택하도록 권유받게 될 것이다. 자립 그룹은 다음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 직장을 찾거나 현재의 고용 상황을 개선한다.
- 개인 및 가족의 재정을 더 잘 관리한다.
- 교육의 진로를 선택하고 학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시킨다.

자립 그룹에서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다음과 같다.

- 삼 개월 동안 매주 두 시간씩 그룹 모임에 참석한다.
- 자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세우고 실천한다.
- 그룹의 다른 일원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상의하며, 서로 돕는다.
-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힘을 키우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능에 대한 더욱 강한 신앙을 키운다.

자립 그룹은 평의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참여자들은 서로 돕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한다. 그룹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교류하도록 권유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훈련 동영상을 보여 주고, 자립 그룹이 관련 자료에 명시된 대로 과정을 따르도록 돕는다.

회원들은 자립 훈련에서 사용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srs.lds.org나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삶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마리아는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 “행복하고 신이 나요. 인내심이 커지고 희망이 생겼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돼요.”

“가장 놀라운 도구”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자립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주와 같이 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사심 없이 봉사하려 할 때 촉진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자립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또한,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오직 자립할 때에만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서 구주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덧붙였다.⁴

세르지오 갈부치는 스테이크 회장단으로부터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직접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때 헤일즈 장로가 말한 그 진리를 몸소 배우게 되었다. 자립 위원회에서 얻은 신앙,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세르지오와 아내 실비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의 “공예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다.

“저는 자립이 신앙을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세르지오는 말한다. 초기에는 부부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삼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부부는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했고 제품만이 아니라 선교 사업으로도 고객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세르지오는 말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문경을 전하는 기회도 있었지요.”

처음에 세르지오가 속한 스테이크의 자립 위원회가 파악한 바로는 스테이크에서 자립이 필요한 회원이 열 명이라고 했다. 그때 감독들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세르지오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감독님들이 그분들을 일일이 자립 그룹에 초대하셨어요.”

그들은 신앙이 성장했고, 필요한 변화를 이뤄 냈으며, 새로운





계시와 자립

스 테이크와 지방부 회장단은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감독하고, 지도한다. 그들은 이를 위해 상호부조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자립 위원회를 조직한다.

자립 위원회는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한 명,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한 명, 감독 복지 평의회 의장 및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와드 평의회가 회원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게 훈련하고 격려한다. 위원회는 자립 그룹을 조직하고 현지 자립 서비스 책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모으고 공유한다.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은 개개인인 핵심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돕는다. “진행자들은 [상호 간 토론을 통해] 성신이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름받았다.(니파이후서 32:5, 또한 니파이후서 32:3 참조)⁵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srs.lds.org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도 익혔다.

세르지오는 말한다. “신권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립 교육이야말로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받은 가장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립 교육은 그 어떤 지원금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교육 내용도 제가 대학 때 배운 대부분의 교재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12주간의 자립 강좌를 이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지를 배우게 된다.

세르지오는 말한다. “이 [자립] 그룹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도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이 그룹에서 삼 개월을 보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더 훌륭한 제자가 되어 갑니다. 결국 우리가 더욱 자립할 수 있는 건 일 덕분이겠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봉사입니다.”



자립과 독립

“주님은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자립하고 독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78:13~14 참조)

각 사람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안녕에 대한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고, 그다음은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셋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경우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블(2006), 116쪽.



성장과 실행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말했다.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구원하고 또 그들을 이곳에서 번영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교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승영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후기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세적인 면을 강화하면 영적인 면도 강화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솔로몬 제도에서 자립 선교사로 봉사했던 데이비드 장로와 테레사 니쉬 자매는 그 지역의 교회 회원들을 보며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은 자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소책자들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나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원리, 기술, 습관과 자립으로 향하는 길에 담긴 포괄적인 설명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전에 참석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 책자들은] 사람들이 현세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발전하여 영적, 현세적 자립을 이루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국 유타 주의 자립 진행자인 첼렐 레드는 자립

프로그램의 영적 원리들이 자신의 현세적인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원리들과 기초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워크숍을 통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책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가족 재정에 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일종의 사업과도 같습니다. 가족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전반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커지면서 회원들은 더 충실해지고 영적인 힘도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원들은 교회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성전에 가기에 늘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르제 에체바리아는 말한다. “자립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페루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조르제는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에 대한 간증이 생겼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이 커졌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수년간 자신이 운전했던 간이 택시들을 수리하는 전기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

그는 말한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은 영적, 현세적 자립 원리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립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현세적, 영적 자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축복을 받아 왔다. 영구 교육 기금은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교육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립 사업을 지원한다.

경전에는 우리가 자립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주님께서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교리와 성약 104:15)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일회장단은 이 목적을 언급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현세적 축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필수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즉, 자립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제일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여러분은



우리 종교의 본질

“동전의 양면처럼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 목록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리의 중심이자 우리 종교의 본질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3, 55~56쪽.

삶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자립의 길로 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소망, 평안, 그리고 진보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⁷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6.1.1.
2. 토마스 에스 몬슨, “개인 및 가족 복지를 인도하는 원리”, 성도의 빛, 1987년 2월호, 3쪽; 또한 Marion G. Romney, in Welfare Services Meeting Report, Oct. 2, 1976, 13 참조.
3. 제일회장단, 나의 기초: 원리, 기술, 습관 (소책자, 2015), 2쪽.
4. 로버트 디 헤일즈,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소책자, 2009), 2쪽.
5. You're Invited: A Leader's Guide to the Self-Reliance Initiative (booklet, 2016), 9.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64쪽.
7. 제일회장단, 나의 기초, 2쪽.



아버지이자 감독인 일리 도다이는 봉사란 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임을 알려 주고자 노력했다.

코디 벨, 사진작가

일리 도다이

알바니아 두러스

우리 와드에는 복부에 종양이 있으신 연로한 자매님이 계셨다. 자매님은 침대를 벗어날 수 없으셨기 때문에 매일 도움이 필요하셨다. 결국 자매님은 내게 집으로 와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 워낙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 다른 신권 소유자나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나여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님은 감독인 내 도움을 받으시고는 편안해하셨다.

어느 날 나는 심장 수술을 받게 되어 며칠 동안은 자매님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 다시 자매님을 보러 가니 자매님이 말씀하셨다. “감독님,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저를 도우러 오셨어요?”

나는 자매님께 말씀드렸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 부름이니깐요.”

도다이 감독과 그의 가족 사진을 더 보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본다. ids.org/go/101738
감독이 하는 일을 더 알아보려면 ids.org/topics/bishop을 방문한다.





내 사업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혼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며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부로 일하면서는 가족을 돌볼 만큼 넉넉한 돈을 벌 수가 없었다. 나는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배울 생각으로 자립 그룹에 들어갔다.

그리고 “창업 및 사업 확장” 그룹에서 영감을 받아 전기 짐통 보관용 가방을 만들어 팔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하며 가방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이튿날 아침까지 마치기로 하고 늦은 밤까지 일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봉틀이 멈춰 버렸다. 자정 무렵이라 수리공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재봉틀에는 작은 공구 키트가 달려 있었지만, 나는 한번도 재봉틀을 고쳐 본 적이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다 나의 기초 교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이라는 부분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나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재봉틀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문량을 다 채워서 아침에 고객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자, 공구 키트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서 그것으로 재봉틀의 한 부분을 눌러야 한다는 느낌이 또렷하게 들었다. 나는 온전히 신앙에 의지하며 그렇게 했다. 그런 뒤 숨을 멈추고 다시 재봉틀 전원을 켰다. 재봉틀이 작동했다!

가방은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업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자립 그룹에서 배운 것을 끊임없이 적용하고자 기회를 찾을 때 계속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
부이실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이튿날 아침까지 마치기로 하고 늦은 밤까지 일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봉틀이 멈춰 버렸다.



취업 면접에서 영감으로 답하다

스 테이크 자립 위원회를 이끄는 책임을 맡고 보니, 내가 능력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을 깨닫자, 나는 직업에 관해 더 큰 소망이 생겼다.

나는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새로 생겼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도움을 구했다. 새로 작성한 이력서를 여러 업체에 보내자, 곧 면접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중 한 군데서 면접을 보던 날이었다. 면접관이 내 이력서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하며 물었다. “여기 쓰신 교회 봉사라는 게 무엇인지 5초 길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2,500여 명을 지도하고 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조직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면접관이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1분을 드릴 테니 다음 질문을 5초 길이로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보시죠. 응시자께서는 그 2,500명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나는 이 순간이 면접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곧 자립 그룹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1분 후 면접관이 물었다.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2,500명의 사람을 지도하십니까?”

나는 답했다. “그들이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일어서더니 나와

나는 이 순간이 면접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

약수하며 말했다. “같이 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내 기도해 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기만 하다. 자립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구주께 감사드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축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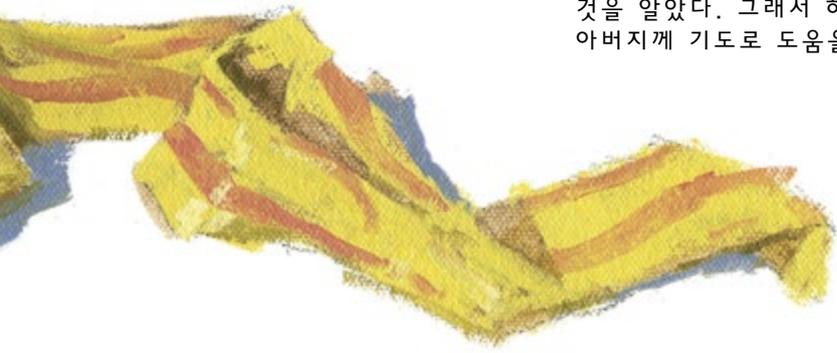
누렸으며, 자립 프로그램의 단순하고 영감받은 과정을 거치며 축복받은 이들을 우리 스테이크에서 많이 보았다. 그리고 삶을 들어 올리는 자립의 원리에 깃든 힘을 굳게

확실했기에, 새로운 직장에서 15명의 직원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자 그들에게 자립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성장했으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는다. 이런 자립 프로그램이 있기에 우리는 더 큰 자존감을 얻으며 매일 발전한다. ■

지브레이르 파딜라 도스 산토스, 브라질 상파울루

삽화: 엠린 간스



비빙카 사업을 확장하다

나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싶었지만, 일주일에 비빙카(떡) 1킬로를 팔아서 그 시간에 아들을 뒷바라지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아들은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의 재정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마음 편히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넉넉하게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었다. 스물 다섯 살인 아들이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의로운 소망을 지닌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아들이 선교 사업의 꿈을 이루려면 기적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나는 자립 그룹에

참여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을 행사한다면,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한번은 모임에서 공설 시장으로 가 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곳에 가니 많은 여성이 필리핀에서 흔히 먹는 간식을 팔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명과 흥정을 했다. 아침에 내가 만든 간식을 가져다주면 그녀가 팔고, 저녁 무렵에 내가 돈을 받으러 오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방식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상인이 더 나타났고, 내가 자립 그룹에 참여하는 동안 그 숫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자립 그룹에서는 사업 자금과 사비를 분리하여 자신에게 급여를 주라고 했다. 또한, 팔리지 않는 항목을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익을 내는 항목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영업 방식도 배웠다. 자립 그룹에 있는 내 활동 파트너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거기서 우리는 제품의 이름과 이미지를 만들고, 포장하는 것에 관해서 배웠다. 마침내 사업의 규모가 자라고 자라, 육체노동을 하던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합류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자립을 통해 자존감을 얻다

있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이제 비빙카 12킬로를 판다고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일주일에 12킬로면 대단한데요!”

내가 말했다. “아니예요, 형제님. 하루에 12킬로를 팔아요.”

나중에 아들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가족의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지금 필리핀 산파블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자립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참되다.(고리와 성약 104:15) ■

로디타 야고마이움, 필리핀 미사미스옥시덴탈

한 번은 자립 그룹 모임에서 공설 시장으로 가 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상인 한 명과 흥정을 하여 내가 만든 비빙카를 팔아 달라고 했다.

나는 아내와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데 직장이 없었다.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자,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 칼라는 자립 그룹에 참석해 보라고 했다. 직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민망한 일이었지만, 아내는 가정을 부양하려면 그 그룹에 참석해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한번 해 보기로 했다. 그룹에 참여하는 동안, 내 영어 능력이 직업 시장에서 귀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선교 사업 중에 영어를 배웠지만, 종교적인 내용으로만 말을 할 줄 알았다. 일단 교회에서 하는 영어 수업에 등록해서 어휘를 늘리기로 했다. 어느 날 영어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수화기를 건넸다.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아내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영어예요.”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한 곳의 인사 담당자였는데, 나를 면접해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면접은 놀라울 만큼 잘 진행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면접을 잡아 놓은 사람은 바로 아내였다.

그렇게 직장을 잡은 나는 자립 그룹에서 받은 도움을 떠올리며 배운 것을 더 잘 적용할 길이 없을지 궁리해 보았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시작하여 한 곳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직접 건설업을 시작해 볼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다.

자립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작하지 못했다면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나는 겸손해지는 법과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내 삶을 축복하기 위해 나를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법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나는 이제 자존감이 생겼으며, 내가 버는 돈으로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다. 겸손할 때 영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안다. ■

호세 알베르토 나바스(미리암 스위니에게 구술한 내용), 코스타리카 산호세



청년 성인들이 청년 사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교훈

매튜 시 고드프리
교회 역사부

그들은 23세에서 35세에 불과한 청년들이었지만, 세상이 변화하도록 힘을 보탰다.

회복된 교회의 첫 번째 사도들은 나이가 많지 않았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교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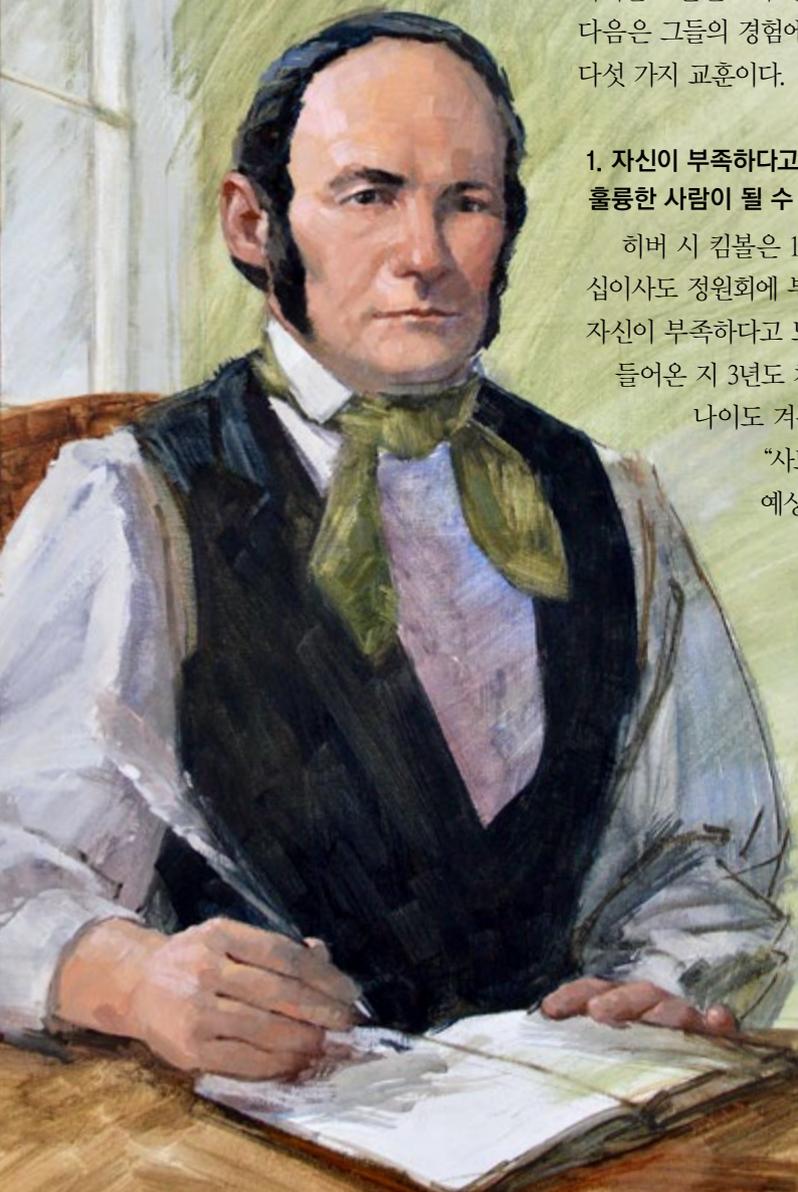
1.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히버 시 김볼은 1835년 2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교회에 들어온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 나이도 겨우 33세에 불과했다. “사도 부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가 회복되고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사도들의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일이었습니다.” 히버는 이후에 이렇게 회상했다.¹ 하지만 그는 기꺼이 부름을 받아들였고, 성임받을 때 “그의 영향으로 수백만 명이 개종”하리라는 축복을 받았다.²

그는 십이사도로서 영국에서 두 차례 매우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고 이들의 후손은 오늘날 수백만 명에 이른다. 히버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낄 때도 부름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축복했다.





2. 우리의 본 모습은 상황이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써 규정된다

토머스 비 마쉬는 14세에 뉴햄프셔의 고향을 떠났다. 그는 버몬트에서는 농장 노동자로, 뉴욕 올버니와 뉴욕 시에서는 호텔의 웨이터로, 그리고 롱아일랜드에서는 하인으로 일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고드킨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

마침내 그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영의 인도를 받아 뉴욕 서부로 갔고, 그곳에서

몰몬경에 대해 듣게 되었다. 토머스는 막 인쇄된 몰몬경의 첫 16쪽을 본 뒤, 인쇄업자의 허락을 받아 교정지를 읽게 되었다. 몰몬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책이라는 믿음이 생긴 토머스는 개종을 결심하여 1830년 9월 3일에 침례받았다.³

토머스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그는 1833년 11월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성도들이 쫓겨날 때 고난을 함께했으며, 1834년 7월에 미주리 주 고등 평의회가 조직되었을 당시 평의회를

이룬 첫 구성원 중 한 명이었다. 또한, 34세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러나 한때 반대자들에 맞서 조셉 스미스를 성실히 옹호했던 토머스는 결국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잃은 뒤 1838년에 교회를 떠났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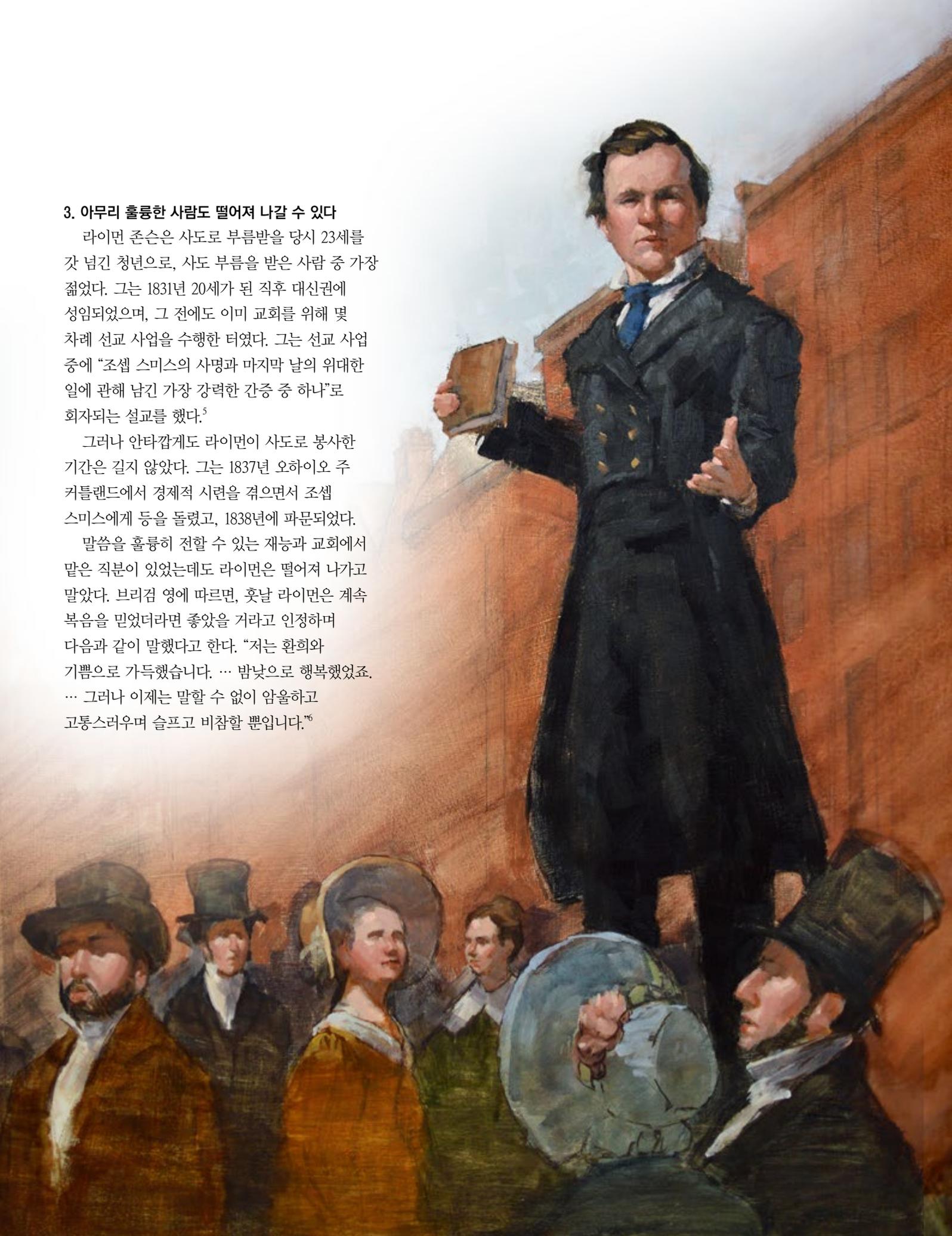
우리가 토머스 마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라이먼 존슨은 사도로 부름받을 당시 23세를 갓 넘긴 청년으로, 사도 부름을 받은 사람 중 가장 젊었다. 그는 1831년 20세가 된 직후 대신권에 성임되었으며, 그 전에도 이미 교회를 위해 몇 차례 선교 사업을 수행한 터였다. 그는 선교 사업 중에 “조셉 스미스의 사명과 마지막 날의 위대한 일에 관해 남긴 가장 강력한 간증 중 하나”로 회자되는 설교를 했다.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먼이 사도로 봉사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는 1837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경제적 시련을 겪으면서 조셉 스미스에게 등을 돌렸고, 1838년에 파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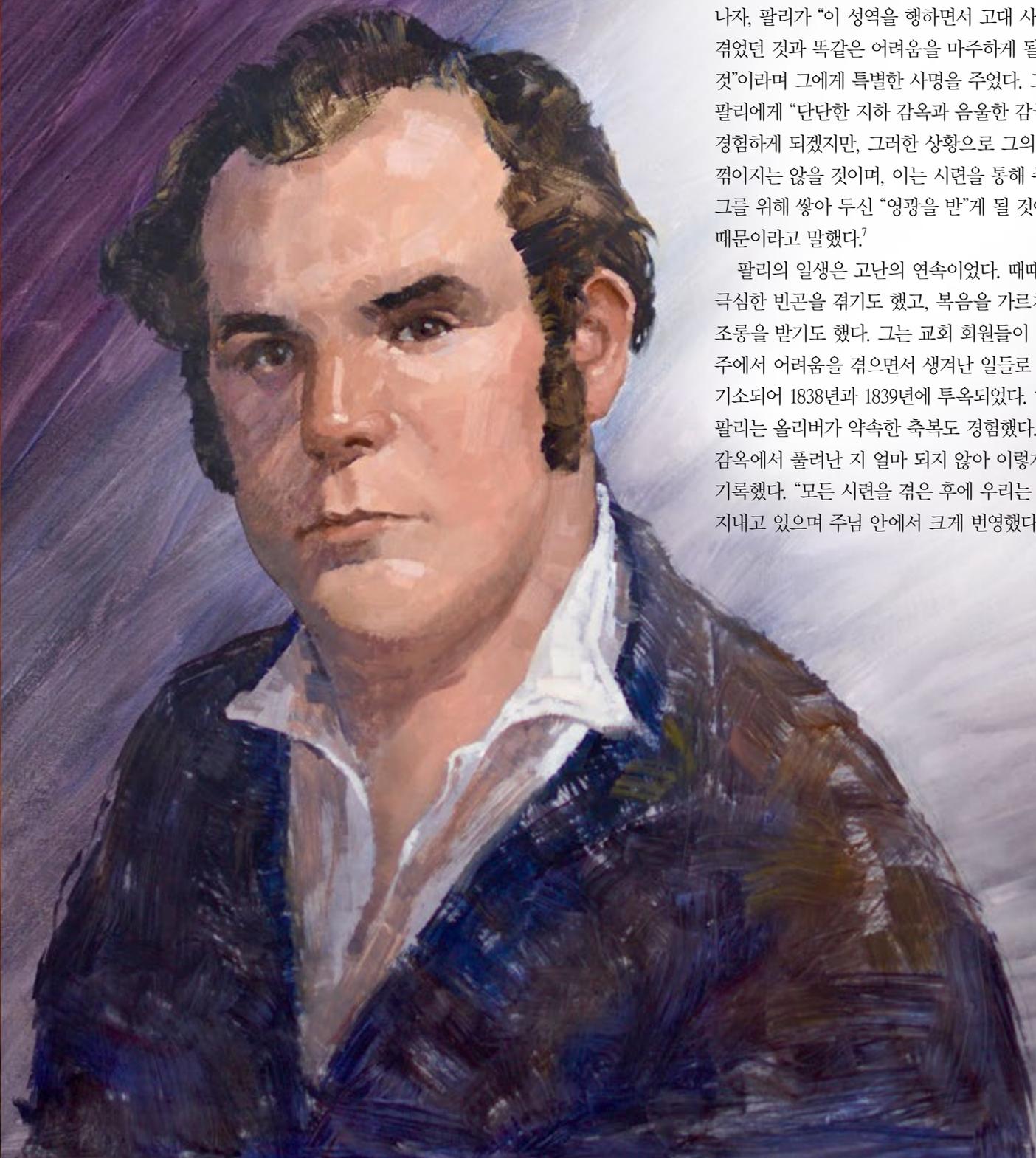
말씀을 훌륭히 전할 수 있는 재능과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었는데도 라이먼은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브리검 영에 따르면, 훗날 라이먼은 계속 복음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저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 밤낮으로 행복했었죠. …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슬프고 비참할 뿐입니다.”⁶



4. 순종은 안락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사도 선정을 돕도록 지명받았던 올리버 카우드리는 팔리 피 프랫이 사도로 성임되고 나자, 팔리가 “이 성역을 행하면서 고대 사도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그는 팔리에게 “단단한 지하 감옥과 음울한 감금”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그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시련을 통해 주님이 그를 위해 쌓아 두신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⁷

팔리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때때로 극심한 빈곤을 겪기도 했고, 복음을 가르치며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교회 회원들이 미주리 주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겨난 일들로 기소되어 1838년과 1839년에 투옥되었다. 하지만 팔리는 올리버가 약속한 축복도 경험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기록했다. “모든 시련을 겪은 후에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크게 번영했다.”⁸



5. 나이는 신앙만큼 중요하지 않다

팔리의 동생 올슨 프랫은 사도 중 두 번째로 나이가 어렸다. 23세에 성임된 그는 라이먼 존슨보다 몇 주 생일이 빨랐다. 올슨이 교회에서 했던 봉사는 청년 성인이 얼마나 훌륭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예이다.

올슨은 1830년 9월 19일인 자신의 19번째 생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조셉 스미스는 올슨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축복받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받았다는 계시를 받았다.(교리와 성약 34:3~6 참조) 이 계시에 따라, 올슨은 여러 차례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중 하나가 1832년 라이먼 존슨과 함께 했던 선교 사업으로, 이 둘은 거의 100명을 침례주었으며 몇몇 장로를 성임하기도 했다.

올슨은 사도로 부름받을 당시 커틀랜드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1835년 4월 23일 콜럼버스 시에 있던

올슨은 4월 26일에 커틀랜드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임의 목적도 모른 채 즉시 커틀랜드로 떠났다. 자신이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는 회중이 “기도하며 그의 도착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⁹ 그리고 올슨은 성도들의 지지를 느끼며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도로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초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소책자를 만들었으며, 1847년에는 개척자로서 서부를 향해 갔던 여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는 또한 선교사 소책자를 여러 권 저술했으며 물론경을 강력히 옹호했다.

오늘날은 다르다 ... 정말 그런가?

물론 오늘날의 청년 성인은 여러 면에서 1835년의 청년 성인과 다르다. 하지만 이 교훈들은 오늘날 청년

성인들이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교회에서 끝까지 활동적으로 생활한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 항상 헌신한다. 순종하고 충실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 여러분은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신다. ■

주

1.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Apr. 15, 1845, 868.
2. “Minutes, Discourse, and Blessings, 14–15 February 1835,”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ed. Matthew C. Godfrey and others (2016), 229.
3. “History of Thos. Baldwin Marsh,” *The Deseret News*, Mar. 24, 1858, 18 참고.
4. “History of Thos. Baldwin Marsh,” *The Deseret News*, Mar. 24, 1858, 18; Kay Darowski, “The Faith and Fall of Thomas Marsh,”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eds. (2016), 57–59 참고.
5. Edward W. Tullidge, *Tullidge’s Histories* (1889), vol. 2 (supplement), 175.
6. Brigham Young, Discourse, June 17, 1877, in *Journal of Discourses*, 19:41.
7. Oliver Cowdery, in “Minutes and Blessings, 21 February, 1835,” in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40–41.
8. “Letter from Parley P. Pratt, 22 November 1839,”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letter-from-parley-p-pratt-22-november-1839/1.
9.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Apr. 15, 1845, 869.



회복된 교회에서 봉사할 첫 사도들을 부르다

18 35년 2월 8일, 조셉 스미스는 브리검 영과 조셉 영 형제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십이사도가 부름받을 때가 되었다는 계시를 받았다.¹

조셉 스미스는 브리검에게 다가오는 토요일에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해 달라고 하며, 브리검이 십이사도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²

옛새 후, 성도들이 모였다. 조셉 스미스는 그날 모임의 주목적 중 하나는 물몬경의 세 증인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가 “교회 회원 가운데 열두 명을 사도로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³ 올리버와 데이비드는 1829년 6월에 이미 이 임무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십이사도를 찾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상태였다.⁴ 이제 조셉은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부름받은 십이사도는 (모임에서 소개된 순서에 따라) 라이먼 존슨(23세), 브리검 영(33세), 히버 시 김볼(33세), 올슨 하이드(30세),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35세), 루크 존슨(27세), 윌리엄 이 매클렐른(29세), 존 에프 보인턴(23세),

올슨 프랫(23세), 윌리엄 스미스(23세), 토머스 비 마쉬(34세), 팔리 피 프랫(27세)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미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었고, 이 중 여덟 명은 지난 여름 조셉 스미스와 함께 시온 진영 원정을 함께한 이들이었다.⁵

이들은 지명된 후 모두 사도로 성임되었다.⁶ 그들은 성임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선교 사업에 대한 풍성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았다. 훗날 히버 시 김볼은 이 축복에는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예견과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 산을 옮길 권능을 갖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의 권한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다”고 회고했다.⁷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들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을 이렇게 강조했다. “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의를 진진케 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것을 요구하실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올리버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재하심을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분에 관해 직접 배우고 알아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까지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⁸

십이사도는 1835년 5월부터 교회를 대표해 여러 차례 전도 임무를 수행했으며, 교회 전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며 많은 이를 축복했다. ■

주

1. History, 1838–1856 (Manuscript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B-1 [1 September 1834–2 November 1838], addenda, note A, page 1,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history-1838-1856-volume-b-1-1-september-1834-2-november-1838/304 참고.
2. Joseph Young,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1878), 1 참고.
3. “Minutes, Discourses, and Blessings, 14–15 February 1835,” in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24–28.
4. “Minutes and Blessings, 21 February 1835,” in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42, 243.
5.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 토머스 비 마쉬, 윌리엄 이 매클렐른, 존 에프 보인턴은 시온 진영의 일원이 아니었다.
6. 열두 명 가운데 아홉 명만 1835년 2월 14일 모임에서 발표되었다. 팔리 피 프랫은 1835년 2월 21일에, 토머스 비 마쉬와 올슨 프랫은 1835년 4월 26일에 성임되었다.
7.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Apr. 15, 1845, 868.
8. “Minutes and Blessings, 21 February 1835,” in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44.

history.lds.org에서 이 경륜의 시대에 처음으로 십이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아볼 수 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예수께서는 가장 힘겹게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덜한 고통을 겪는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 깊이 연민하십니다.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제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성찰하고 숙고해 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었더라면 속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은 후로, 저는 “성품”이라는 말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속죄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어쩌면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잣대는, 사람이라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받기 마련인 도전이나 역경을 겪는 이를 볼 때 그들의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는가일 것입니다. 가령, 사람의 품성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 안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내가 굶주릴 때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알아차리는 능력과, 내가 영적인 고난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 겪는 영적 고통에 손을 내밀고 동정심을 보이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즉, 나에게만 몰두하여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상황일 때 밖으로 시선을 돌려 손길을 내미는 행위를 통해서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능력이 도덕적인 성품을 판가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라면, 세상의 구주는 그와 같이 한결같고 자비로운 품성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요한복음 17:20, 21, 23, 26)

이 일과 함께, 그분께서 동산에서
고통과 배반을 당하실 때에 임박하여
일어난 다른 사건들에 관해 곰곰이
생각할 때면, 저는 거듭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뇌를 목전에
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복리와
합일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보다 위안과 평안이 훨씬 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위안과 평안을
구하실 수 있었을까?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몰리신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황과 고민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었을까? 인간이라면 자신만 돌보기도
버거웠을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밖으로
손을 내밀 수 있으셨을까?’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은 이런 강력한 질문
하나하나에 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놀라운 속죄를
이루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품성이 없었더라면
숭고한 속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그분이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으나(엘마서 7:11), 전혀
유혹에 ‘개의치’ 않으셨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교리와 성약 20:22)”²

예수께서는 가장 힘겹게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덜한 고통을
겪는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 깊이
연민하십니다. 참으로 고통과 연민의
깊이는 성역을 베푸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깊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예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그 밤,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일어난 고통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게 될 바로 그 밤에, 다락방에
머무시며 보혜사와 평안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5~27)

이제 곧 자신이 몸소 그 위안과 평안의
부재를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고도,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자신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가누기가
힘겨우셨을 텐데도, 주님은 밖으로 손을
내밀어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었고
필경 힘이 되었을 바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를 건너 겐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직전에 드리신 위대한 중보
기도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며

우리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들로 축복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그러한 요소들을 기르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향받기 마련인 도전이나 역경을 겪는 이를 볼 때, 손을 내밀고 적절히 대응할 힘을 뒷받침하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는 그러한 은사를 받기 위해 진정 의롭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순전한

의지나 개인적인 결심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니파이후서 2:8) 그러나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니파이후서 28:30) “때가 지”나야만(모세서 7:21), 우리는 타고난 성향 탓에 나만 생각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밖으로 손을 내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영의 은사를 받고자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기르기 위해 기도하고 열망하며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나 혼자만의 의도가 담긴 인내와 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이나 특징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존중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며,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를 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은사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모로나이서 7:47 참조) 모든 영적인 은사는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과 시기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러한 은사를 바라고 열망하고 초대하며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점차 일치시킬 때, 아마도 그것은 신성한 사랑이라는 영적 은사를 구한다는 바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으로 난 사람 탓에 당연히 나만 생각하기가 쉬운 순간에 더 많이 밖으로 손을 내민다면, 분명 우리는 이 놀라운 은사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 덕분에 우리가 불멸과

영생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타고난 성향 탓에 자신만 돌보기가 쉬울 때, 우리가 밖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03년 1월 25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종교 심포지엄 연설에서 발췌함.

주

1. Neal A. Maxwell, “The Holy Ghost: Glorifying Christ,” *Ensign*, July 2002, 58.
2. Neal A. Maxwell, “O How Great the Plan of Our God!”(address to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 Feb. 3, 1995), 6, si.lds.org.

연차 대회 메시지로

삶을 바꾸는 방법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해 보면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해들리 그리스

영적으로 조금 덜 채워진 느낌이 드는가? 영적인 지침을 받고 싶은가? 다행히도 우리는 연차 대회라는 모책이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의 어린 회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연차 대회를] 들으신다면 [영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 느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연차 대회가 열리는 주말로 끝나지 않는다.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영은 계속 느낄 수 있다!

연차 대회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연차 대회를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 가는 법을 배우으로써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은 위성 방송을 시청하거나 나중에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다루는 가르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연차 대회를 듣거나 읽으면, 그 말씀과 영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다음의 짧은 퀴즈를 풀어 보면서 대회의 메시지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두면 좋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두 가지 정해 보자.(더 깊이 있는 문제를 보고 싶으면 2016년 10월호 *New Era* 또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장을 참고한다)

아래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9개를 살펴보고, 각 성품의 보기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고른다.

1. 신앙

- a.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 b.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 c.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로 여기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 못되게 군 것은 아니었지만, 잘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극심히 여기는 자가 극심히 여김을 받습니다”(2012년 4월 연차 대회)라는 말씀을 듣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일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저는 그분의 말씀 덕분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제가 가진 나쁜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학교에 갔을 때, 저는 평소에 함께 다니던 친구들 대신 다들 “왕따”로 여기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섯 명의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 새 친구들이 “왕따”로 불릴 이유는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는 언제나 그들도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홀리 에이치, 19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2. 소망

- a. 미래를 편안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 b.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다!
- c. 보통은 미래를 무시하고 지낸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3. 자애와 사랑

- a.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늘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 b. 내 생활을 돌보기만도 벅차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다.
- c. 다른 사람의 영원한 복리와 행복을 바란다.



4. 정결

- a. "생각과 행동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다!
- b.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
- c.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5. 지식

- a.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질문의 답을 찾을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
- b. 웹. 공부라니? 때로 배우려고 애쓰는 일이 너무 따분하게 느껴진다.
- c. 진리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6. 인내

- a. 속상해하거나 짜증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 b.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화도 난다.
- c.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다. 모든 것을 당장 원한다.

7. 겸손

- a.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고 싶다.
- b.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께 의지한다.
- c.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

8. 근면

- a. 대부분 TV를 보고 친구와 어울리며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 b. 보통은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 c.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과 힘을 쏟는다.

9. 순종

- a. 지도자와 부모님의 조언을 기꺼이 따른다.
- b. 대개 내 마음대로 한다.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기가 힘들다.
- c. 지도자와 부모님의 조언을 따르지만, 그것에 관해 불평할 때도 있다.

이제 여러분이 쓴 답을 본다. 어떤 성품을 얻기 위해 노력해 보고 싶은가? 이 성품들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한두 가지를 골라서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차 대회를 듣는다.

만일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면, 계속 노력한다! 문제를 풀면서 외당은 한두 가지 성품을 골라서 그 부분에 집중하며 연차 대회 메시지를 공부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여정의 어디쯤에 있든지,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항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성품을 선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언제든지 연차 대회를 경청하며 그때그때 외당은 성품을 선택하여 그 부분에서 나아지고자 노력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이 집중해서 기르고 싶은 성품을 한 가지 선택했다면 그것을 적어 놓는다. 그러면 연차 대회를 듣거나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 연차 대회를 듣고 공부할 때는 영이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기르도록 노력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다음 예시를 읽어 보자!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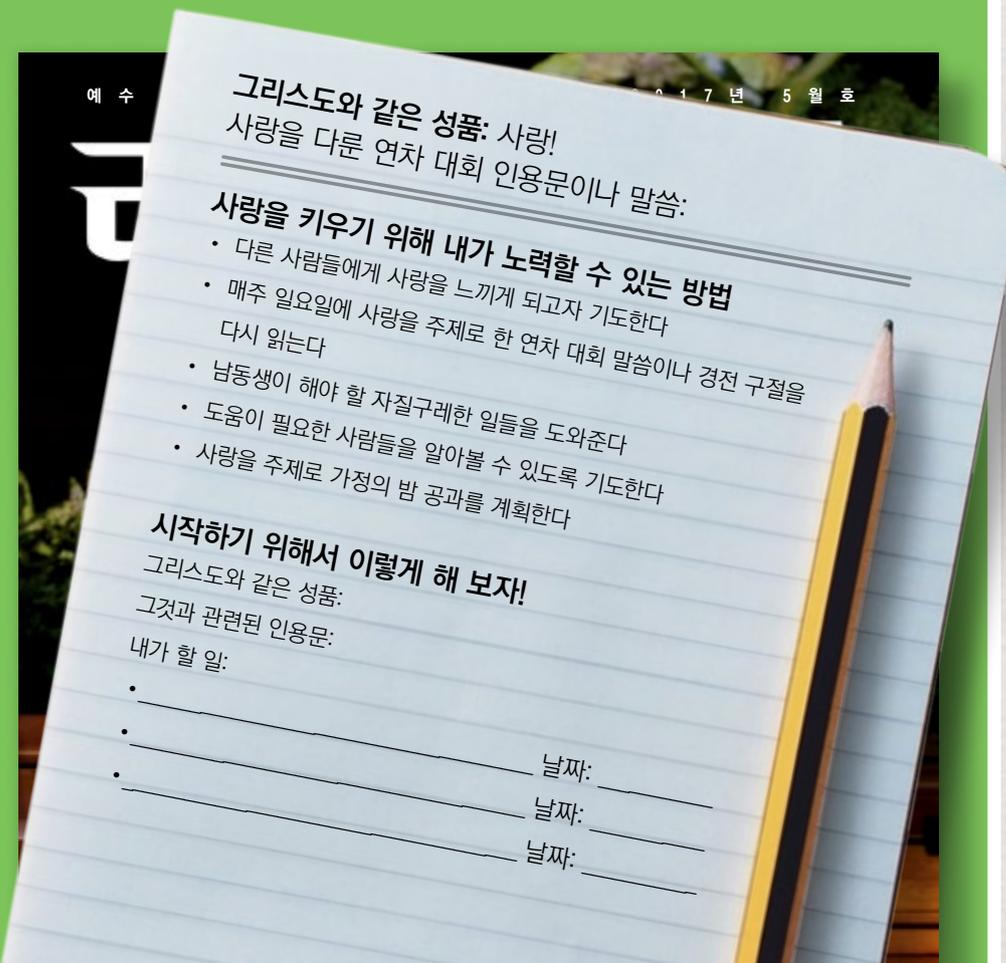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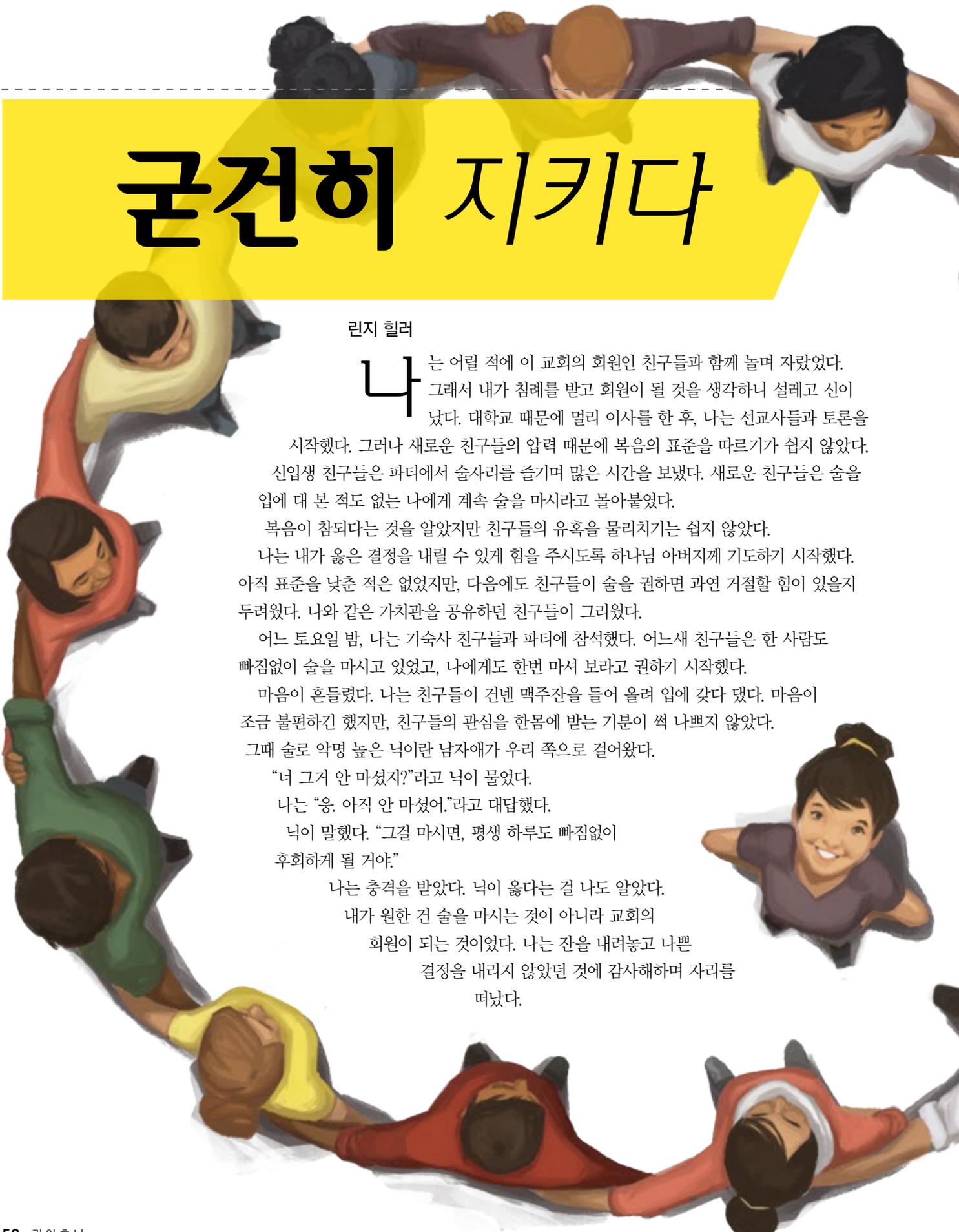
1. Robert D. Hales, "General Conference: Strengthening Faith and Testimony," *Liahona*, Nov. 2013, 6.

20 15년 10월 연차 대회를 듣는 동안 특별히 외당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던드 장로님의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절호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케스트라 수업에 갔고 평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남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 때문인지 속상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좀처럼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케스트라 수업이 잘 돼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곡을 잘 모르는 데다 연주회 때문에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곡을 함께 맞춰 봐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함께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는 훌륭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리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 보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타 엠, 12세, 미국 텍사스 주





굳건히 지키다

린지 힐러

나는 어릴 적에 이 교회의 회원인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자랐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될 것을 생각하니 설레고 신이 났다. 대학교 때문에 멀리 이사를 한 후, 나는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친구들의 압력 때문에 복음의 표준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다. 신입생 친구들은 파티에서 술자리를 즐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친구들은 술을 입에 대 본 적도 없는 나에게 계속 술을 마시라고 몰아붙였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친구들의 유혹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직 표준을 낮춘 적은 없었지만, 다음에도 친구들이 술을 권하면 과연 거절할 힘이 있을지 두려웠다. 나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던 친구들이 그리웠다. 어느 토요일 밤, 나는 기숙사 친구들과 파티에 참석했다. 어느새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나에게도 한번 마셔 보라고 권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친구들이 건넨 맥주잔을 들어 올려 입에 갖다 댔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친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다. 그때 술로 악명 높은 닉이란 남자애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너 그거 안 마셨지?”라고 닉이 물었다. 나는 “응. 아직 안 마셨어.”라고 대답했다. 닉이 말했다. “그걸 마시면,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닉이 옳다는 걸 나도 알았다. 내가 원한 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에 감사해하며 자리를 떠났다.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
표준을 지키며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튿날 아침, 나는 교회에 가서 선교사들을
찾아 침례식 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술이 있는 파티에는 가지 않았다. 또, 교회에서
나와 가치관과 표준이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기숙사 친구들과도 여전히 잘
지냈지만 그들에게 내 표준을 명확하게
해 두었다. 내 가치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친구들은 이제 그것을
존중했고 더는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기숙사 친구들은 부적절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도 내가 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존중해 주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 간증은 한층
강해졌다. 나는 앞으로도 친구들의 압력 때문에
내 표준을 낮추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내
표준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나는 안다.

또한 내가 유혹을 물리칠 힘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성신이 격려해 주셨던
것에 감사드린다. 교회의 표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을 따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나는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함께 가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이 같이 할 때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거나,
그룹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여러분이 인식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이미
강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여러분은 좋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진리를 수호하게 되며, 주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 “의로운 선택을 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7쪽

“십 대의 전형”을 깨고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오늘날 세상은 십 대 청소년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십 대에 대한 고정 관념 혹은 “요즘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 습관, 구매하는 물건, 심지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관한 연구나 통계도 많다.

하지만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청소년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이렇게 전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전문가들의 말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¹

주님은 우리에게 관해 알아보시기 위해 연구 자료나 고정관념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통계의 결과로 보지 않으시며, “세상”이 묘사하는 방식 안에서 규정된 존재로도 보지 않으신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그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되고 싶어 하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의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²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개의치 말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랑하신다.

세상이 정해 놓은 틀을 깨고 싶은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택하신 종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움직일 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12세에 당신이 “[그의]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 함을 지상의 부모께 일깨워 주셨다.(누가복음 2:49)

그러기에 그분은 너무 어리지 않으셨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계할 수 있는가?

그분의 “일”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모세서 1:39)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관계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때이다. 영원의 세상에서는 물론 이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에 관해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맞게 생활할 수 있다.



지금부터 깨끗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로 해 보자.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가? 효율적인 학습법을 개발해 보자.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가? 복음을 공부할 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도 포함해 보자.(특히 제3장) 가족을 부양하기 원하는가? 지금부터 예산을 세우고 예산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워 보자.

또한 지금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수학을 좋아하는가? 피아노 연주는 어떤가? 글 쓰는 일은 또 어떤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자! 학교 수업, 온라인 학습, 경연대회, 강습회 등 그런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벗어나 보자!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의

LDS 청소년 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겨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46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3쪽.

내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되려면,

예 산 짜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복음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으며 봉사에 더 정성을 들일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방법을 공유하려면, Liahona@ldschurch.org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LDS 청소년 페이지로 메시지를 보내 보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스스로 아는 법

사 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재하시고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회복되었다는 굳건한 간증을 여러분이 스스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가 드린 겸손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본보기가 됩니다. 조셉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혼란에서 구해 주시리라는 **신앙으로 기도하고자 숲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조셉은 귀 기울여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행하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과연 참된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마음 깊이 그것을 이해하며 **거듭 숙고한 뒤,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권유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나 일주일 만에 응답이 주어지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신앙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으로 답하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여러분은 응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 축복이 될 영적 지식을 얻을 틀을 마련하게 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

2017년 3월에 있었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에서 발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실시간 대화 모임에 대한 의견: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전 공부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명확히 강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관해,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에 관해 토론한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분을 친구가 아닌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경외하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슈아 시, 미국 하와이 주

“기도와 경전 공부 외에 간증을 강화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

명 간증은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경전에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라고 가르치듯, 간증은 한 번에 하나씩 영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자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씨앗을 키우듯 간증을 키우고 강화해야 한다.(엘마서 32:28~43 참조) 식물이 물만 먹고 살 수 없듯이, 간증을 강화하기에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란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필요하다.

의심할 나위 없이, 기도와 경전 공부는 간증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복음을 공부하고 어떤 것이 참된지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담아 기도할 때, 우리는 성신의 도움으로 복음이 참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모로나이사서 10:4~5 참조)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간증을 강화할 수 있다. 금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찬을 취하는 등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단순히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참된지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을 알게 되리라고 하셨다.(요한복음 7:17)

간증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간증을 나누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은 “간증은 간증을 전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35쪽) 우리는 교회와 세미나리에서,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우리가 나누는 바가 참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간증을 강화할 때, 간증이 자라고 깊어지며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선교사와 함께 일하세요

세계 선교 사업은 간증을 강화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할 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조이 디, 19세, 필리핀 레이테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간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용감하고 단호하게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증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76:79 참조) 간증을 나눌 때도 간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 사이먼 장로, 23세, 콩고 민주 공화국 루분바시 선교부

성신에 귀를 기울이세요

교회에 가고, 경전을 읽고, 연차 대회 말씀을 듣는 일로써 간증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성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신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신에 귀 기울이세요. 성신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간증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알리사 비, 16세, 미국 버지니아 주





선교 사업을 하세요

선교 사업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간증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통해 강화될 것이며,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행할 때 간증이 강해질 것입니다.

베일리 필리 윌리엄스 장로, 19세, 싱가포르 선교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세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는 것이 제 간증을 강화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고 단순한 것이라도 제가 믿고 있고 참되다고 알고 있는 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이를 통해 제가 참되다고 말한 것들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즉, 제 간증이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글러스 에스, 20세, 브라질 상파울루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됨으로써 간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제 간증을 강화했습니다.

박경진, 17세, 한국 서울

간증을 나누세요

간증을 나누는 것은 간증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증을 나누면서 간증을 얻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참된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간증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포터 에스, 12세, 미국 아이다호 주



사람들에게 봉사하세요

기도와 경전 공부를 제외하고 간증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에도 봉사를 하면서 위안을 받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제이, 18세, 미국 유타 주



간증에 영양분 공급하기

“식물과 마찬가지로 [간증]도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역시 여러분이 간증을 키우기 위해 뿌려 주어야 하는 영양분 중 하나입니다.”

헨리 비 아이머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살아 있는 간증”,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26쪽

다음 질문

가정에서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영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을 2017년 1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 클릭)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 또는 지부, (4)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미국 유타 주에 거주하는 에이미 제인 레빗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함.

우리는 모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주변에 성전이 지어질
때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프랑스 파리 성전의
나선형 계단



제 이름은 레이철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은 제 가족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파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일 년에 몇 차례씩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거기까지 운전해서 다녀오는 데는 무려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매주 교회 모임이 끝나면, 부모님은 그곳에 들러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고, 다음으로는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 뒤 성전이 높이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집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언젠가 성전에 가기를 고대합니다. 큰언니 에스더가 가장 먼저 대리 침례를 받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 자기 차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 도시에 성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삿포로까지



일본 삿포로 성전 해의
왕국실 상들리에



저는 일본 삿포로 성전 근처에 삽니다.
저는 집 안 창가에 앉아 성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를 할 때는 친한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성전 헌납식은 성전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삿포로 성전이
헌납식을 하던 날은 제 생일이기도 하고
몬슨 회장님의 생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삿포로 성전이 헌납될 때 그 안에 있었고,
몬슨 회장님도 만났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성전 마당을 거닐며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하고 나중에 그곳에서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이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성신은 신화의 세 번째 일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분은 지식을
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신은 또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안해 주십니다.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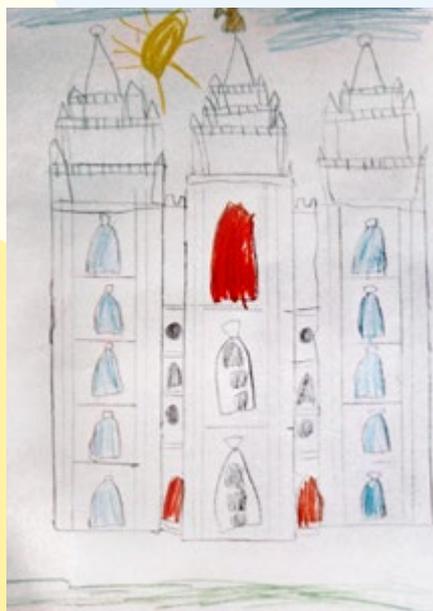
리하이의 시현, 마리아 브이, 10세, 브라질



페루 리마 성전, 발레리아 티, 9세, 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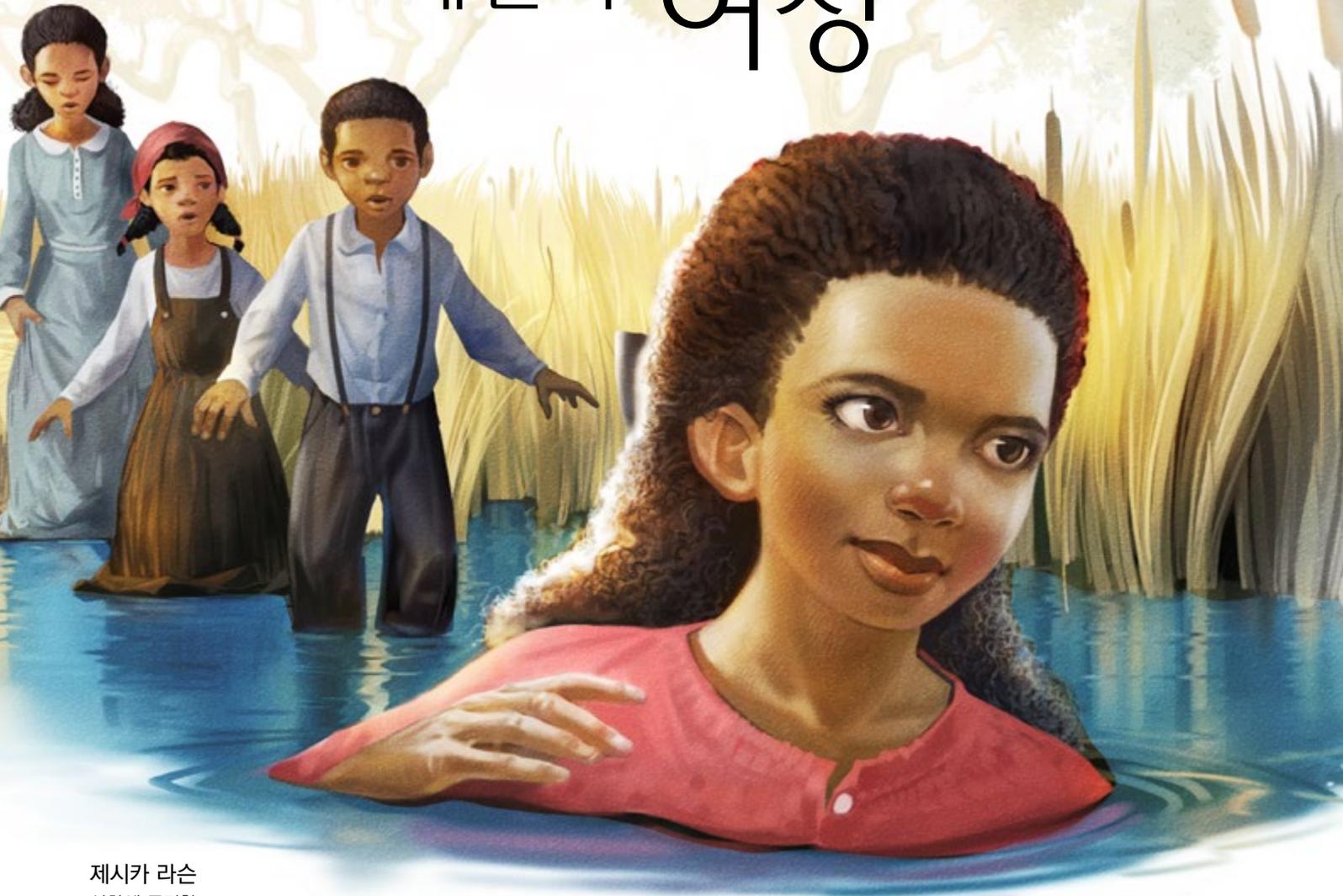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랜지 지, 10세, 에콰도르



슬트레이크 성전, 멀리사 엘, 5세 및 아멜리아 엘, 2세, 에스토니아



제인의 여정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1843년, 미국 뉴욕 주

제인 매닝은 항구를 나선 배가 이리 호를 향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배와 함께 그녀의 꿈도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제인이 나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합류하고자 이주를 결심한 것은 딱 일 년 전의 일이었다. 제인은 어머니와 일곱 명의 가족과 함께 이리 운하를 따라 뉴욕 주 버펄로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버펄로에 도착하고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에 탈 수 없었다.

남동생 아이잭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차가운 공기 속에 질문이 울렸다. 나부까지 가려면 아직도 1,287km가 남아 있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여행을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었다. ...

그러나 제인은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물문경은 참되고, 하

나님은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제인은 가족과 함께 나부로 가야만 했다.

제인은 어깨를 펴고 서쪽을 바라보았다. “걸어서 갈 거야.”

그렇게 그들은 걸어서 갔다. 신발이 해지고 발이 갈라져 피가 났다. 발이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때로 밖에서 잠을 청할 때면 눈처럼 차디찬 뉘서리를 맞아야 했다. 그들을 도망친 노예로 여기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매닝 가족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흑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길을 걸으면서 그 시간을 버텼다.

나부가 가까이에 이르러 강이 나타났다.

“다리가 없어.” 아이잭이 말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냥 걸어서 건너야지.” 강에 발을 집어넣자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제인은 아주 조금씩

제인 매닝은 조셉 스미스 부부와 여러 달을 함께 살았다. 그녀는 아이작 제임스와 결혼하여 초기 개척자들 무리와 함께 유타 계곡에 정착했다. 또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끝까지 충신했다. 제인 매닝은 1908년에 사망했으며,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무릎이 잠기고, 곧 허리가 잠겼다. 강 한가운 데쯤 이르자 물은 목까지 차올랐다! 다행히도 물은 더 깊어지지 않았고 매닝 가족은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다.

이윽고 가족은 나무에 도착했다.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로 나무 성전의 아름다운 석회암 외벽이 보였다. 비록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숨이 멎을 듯한 모습이었다. 가족은 선지자 조셉이 사는 집으로 안내받았다.

질은 머리칼의 호리호리한 여성이 문간에서 그들을 맞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에머 스미스예요.”

다음 몇 분 동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제인은 선지자를 만났고, 그는 매닝

가족이 앉을 수 있게 방 안에 둥그렇게 의자를 놓아 주었다. 제인은 황송한 마음으로 의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조셉은 친구인 버니셀 박사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닝 가족을 소개했다. 그런 뒤 조셉은 몸을 돌려 제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이 작은 무리를 이끈 아이구나, 그렇지?”

“네, 선생님!” 제인이 대답했다.

조셉은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제인은 발에 상처가 났던 일이며 눈 속에서 잠을 잤던 일, 그리고 강을 건넜던 일을 이야기했다. 모두 숨을 죽였다. 제인은 이렇게 말을 마쳤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발을 낮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

하며 즐겁게 길을 걸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조셉이 그 남자의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닐까요?”

“저라면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뒷걸음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버니셀 박사가 말했다.

조셉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인과 제인의 가족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세라와 엠아르아이 (MRI: 자기 공명 영상)

줄리언 도먼
실화에 근거함

성신은 세라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주 세상 계실 때 약속해 주셨네 성신을 보내 우리를 인도하리라고.”(어린이 노래책, 56쪽)

“MRI(엠아르아이)로 세라의 등을 찍어 봐야 할 거 같군요.” 의사이신 프랭크 선생님이 세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로 일정을 잡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세라는 한동안 등이 아팠어요.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땐 너무 아픈 나머지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세라와 엄마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려고 프랭크 선생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엠아르아이를 또 찍는다고요?” 세라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전에도 엠아르아이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세라는 몸속 사진을 찍는 커다란 관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구나. 하지만 프랭크 선생님도 사진을 찍어 보셔야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단다. 넌 잘 해낼 거야. 엄마도 네 옆에 있을게.” 엄마가 세라의 손을 꼭 잡아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랑 같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세라가 말했어요. 고개를 떨군 세라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까지는 엄마가 함께 들어가 주실 수 있지만, 기계 안에는 세라 혼자 들어가야 하거든요.

엄마는 세라를 감싸 안아 주셨어요. “맞아.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단다.”

세라는 성신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는 말을 들어 본 기억이 났어요. 성신은 세라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성신이요?” 세라가 말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단다. 성신의 도움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러자 세라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빠한테 축복해 달라고 해도 될까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아빠는 세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신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성신이 위로해 주리라는 축복을 주시자, 세라는 온몸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해졌어요. 그 느낌은 그날 밤 내내 세라 곁에 머물렀지요.

다음 날, 세라는 엠아르아이 기계의 커다란 관으로 들어갈 긴 대에 누웠어요. 세라는 아빠가 축복하시는 동안 하셨던 말씀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성신이 함께하시며 위로해 주시리라는 말씀요. 세라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나자, 간호사가 세라를 관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엠아르아이 기계가 등 사진을 찍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아날리스 에프,
6세, 미국 유타 주

저는 다섯 살 때 편도 제거 수술을 해야 했어요. 정말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아빠가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을 받은 후에는 겁이 나지 않았어요. 아빠와 저는 둘 다 성신을 느껴 행복했어요.

났어요.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지 않도록 세라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어요. 일 분 정도는 무서웠지만, 그다음에는 다시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안아 주시는 느낌과 비슷했어요. 포근한 담요를 덮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세라는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새 엠아르아이가 끝났어요!

프랭크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세라와 엄마에게 세라의 등 사진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세라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했다. 가만히 잘 누워 있었구나. 그런데 사진을 보니 더 잘 걸으려면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생님은 엄마를 바라보시며, “수술을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세라를 돌아보셨어요. “예전처럼 되려면 몇 주 걸릴 거야. 하지만 오늘 너를 보니 아주 잘 해내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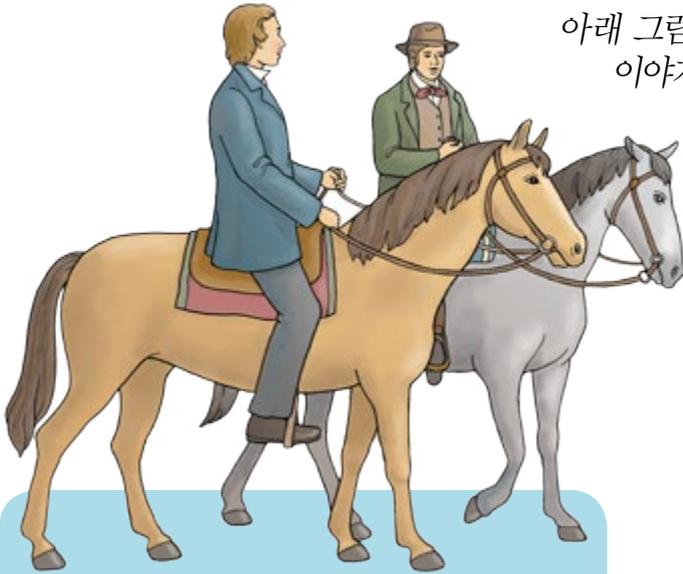
세라는 의사 선생님이 등을 낮게 해 주시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낙엽 더미 속으로 폴짝 뛰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전부 세라가 해 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술은 엠아르아이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때 세라는 자신의 기도와 특별한 축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라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라를 다시 도와주실 거예요.

세라는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낙엽 더미 속으로 폴짝 뛰어들 수도 있나요?” 세라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그렇고말고.”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새로운 선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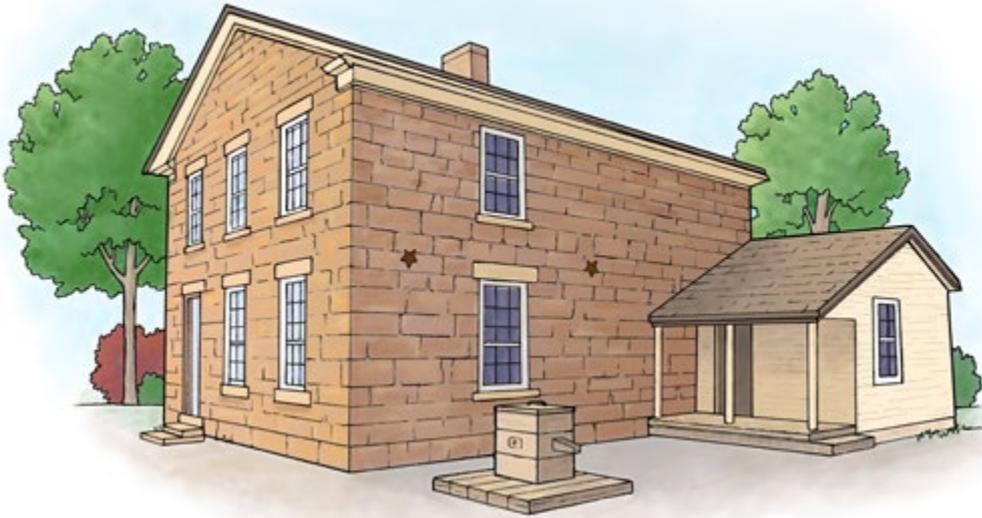
아래 그림들을 잘라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조셉과 하이럼



브리검 영



1844년,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카테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감옥으로 들이닥쳤고 선지자와 그의 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다음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모임에서 브리검 영이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검 영의 모습과 목소리가 마치 조셉 스미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브리검 영이 다음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다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씩 돕는 손길

칼럼 에이치, 10세, 독일

모 든 것은 우리 스테이크에서 난민 돕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무척 마음에 들어 학교 선생님께도 이 일을 말씀드려 달라고 엄마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은 4학년 학생들과 무언가를 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본보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메디 누나와 함께 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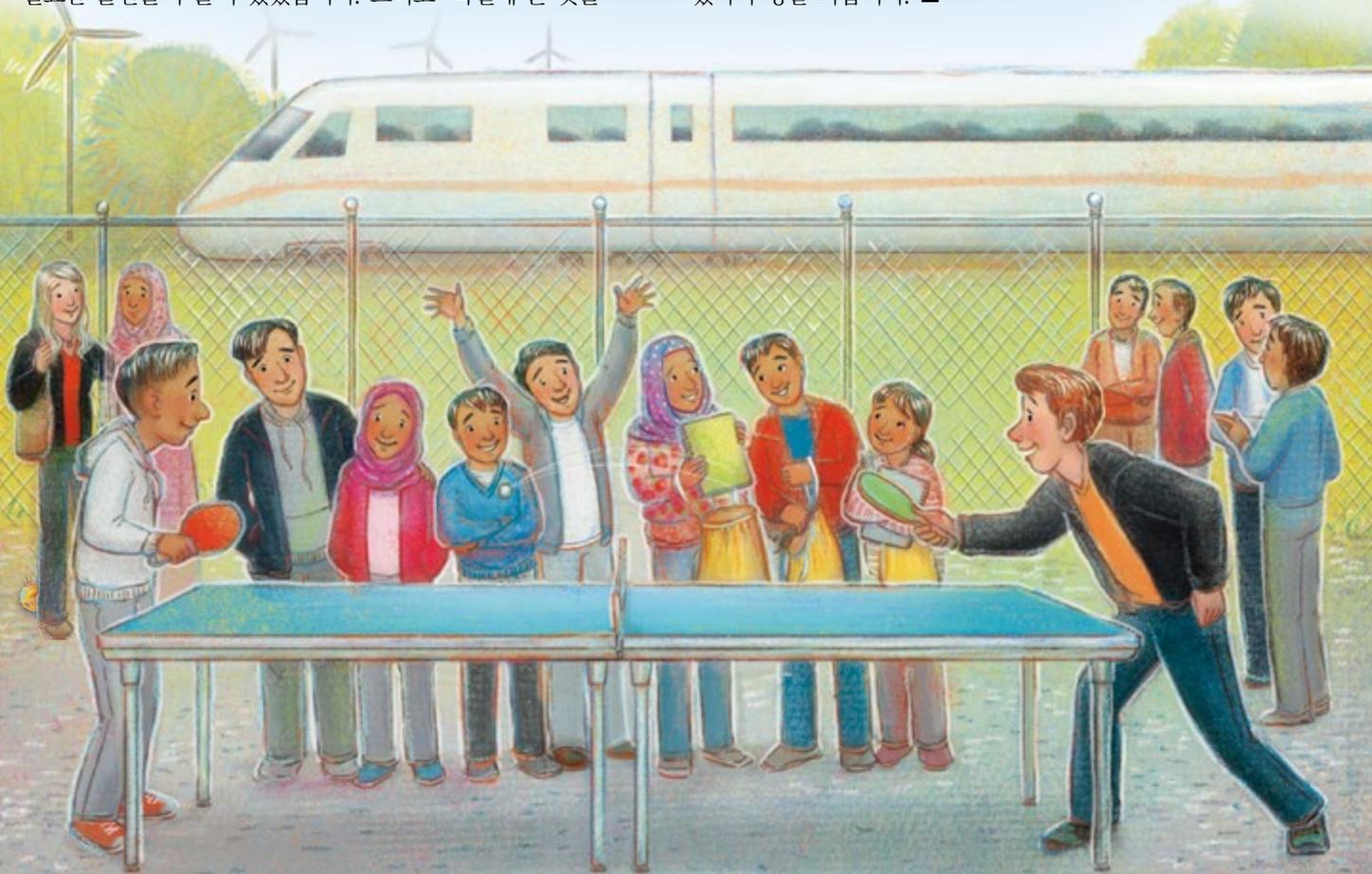
4학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발표할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떨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심하게 긴장한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4학년 학생들 앞에서 난민들을 위해 학교에서 만들 키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마다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전하며, 저보다 더 성금을 잘 모으도록 노력해 보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100개가 넘는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책과 연필 등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온 것을

환영해!”라고 적힌 쪽지도 넣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키트를 난민촌으로 가져갔습니다. 난민촌은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놀이터도 있고 공부할 장소도 있었습니다. 난민촌 옆으로는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기차가 지나갔는데, 아이들 말로는 그 소리가 마치 시리어나 그 근처 지역의 하늘을 날던 제트기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고향에서 폭탄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에게는 아마도 그 소리가 폭탄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난민촌에는 제 또래 친구도 몇 있었습니다. 그중 다니엘이란 아이는 체스를 정말 잘 두었습니다. 저도 체스를 좋아해서 다니엘과 체스를 두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푸즈볼과 탁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이 그림다고 했고, 제발 난민촌을 떠나 다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푸즈볼과 탁구를 했고, 그런 뒤 우리가 만든 키트를 전했습니다. 제가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예수님이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김웹리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셉 스미스라는
소년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조셉은
자신이 어느 교회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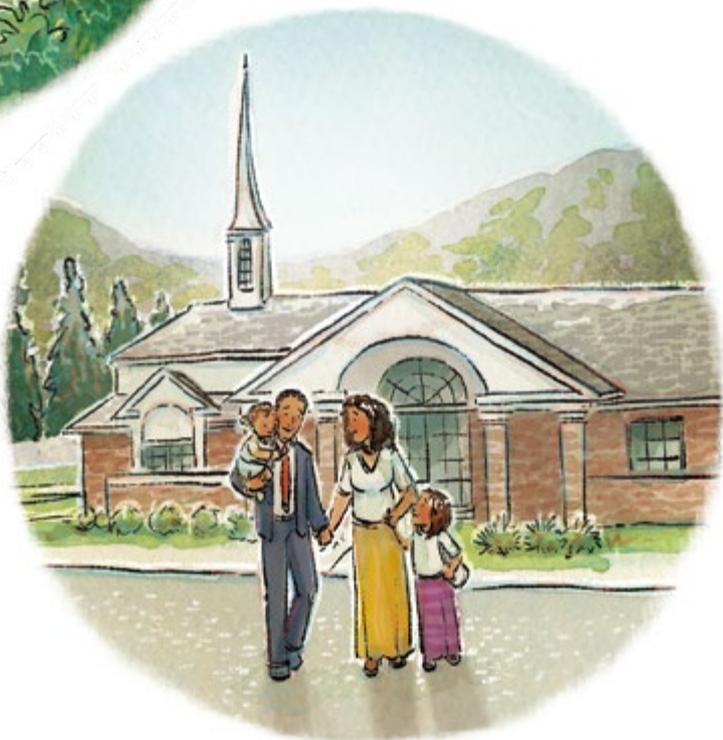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신다고 나와 있었죠. 그
말씀에 따라 조셉은 숲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조셉에게 어느 교회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그분의 복음 중 일부만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조셉은 성장해서 어른이 된 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이 지상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왔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불려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배우도록 도와요.





경전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더 배우게 돼요.
제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

안식일은 거룩한 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오늘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의 마음속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모사이야서 18:8]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돕고 싶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합니까?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 생활에 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그 일을 맡기며 ‘그래, 분명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라고 정당화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쁜 삶에 치여 삽니다. 하지만
잠깐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면서
더 중요한 대업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북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손이자 그분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

귀에 익숙한 다음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줬나
우리 실수 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집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전 세계의
회원들에게 드리는 제 권고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해 바로 오늘
무언가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립에 대해 더 배우려면 이번 호
32쪽과 40쪽을 참조한다. ■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에서 발췌함.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4~87쪽.



축복,
루이스 파커

“그리고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이는 만물이 나의 것임이라. …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그러하도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 … 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04:15, 17)

자립에 대해 더 배우려면 이번 호 32쪽과 40쪽을 참조한다.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청년 성인들이

청년 사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교훈

“우리의 본 모습은 상황이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써 규정된다.” 회복의 시기에 부름받았던 첫 번째 사도들 중 다섯 사도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교훈들 중 한 가지는 이것이다. 그 다섯 사도들은 청년 성인이었다.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나머지 교훈들에 대해서도 읽어 보자.



44쪽

청소년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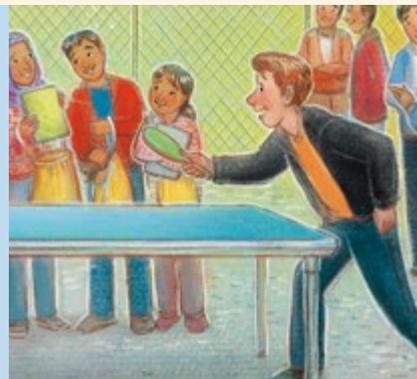
연차 대회 메시지로 삶을 바꾸는 방법

연차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기회이다.

어린이

한 번에 하나씩 돕는 손길

케일럽은 독일에 살아요. 그는 가까이 있는 난민 캠프 어린이들을 돕고자 뭔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75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